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용어 정의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성 건강은 남녀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5대 관련요인 중 하나로서 인간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십대 여학생이 겪는 성 관련 경험은 그들이 누리는 전 생애 동안 성 건강에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Green 외, 2000: 28-30).

청소년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숙해 가는 과도기로 급속한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성적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성적 호기심과 경험 기회가 증가되고 과거보다 이성과의 교제가 쉬워져 이로 인한 많은 성적 갈등과 혼돈을 경험한다.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여가를 즐기는 법을 배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성과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성인기에 일생을 함께 할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사قم의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은 상호 용납되는 범위 내에서 성 행동을 실험해보는 기회가 된다(Atwater, 1992).

우리 나라의 성 문화는 그동안 성적으로 불평등했던 가족제도와 사회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녀에게 차별적 성윤리 규범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을 상품화한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또 사회 규준의 갑작스런 영향력 감소로 인한 성 혁명 및 외래에서부터 들어온 성개방 풍조 등도 우리사회에 혼재하고 있다(차은석, 1999: 357-375).

우리 나라의 십대 성 경험률, 임신율 및 키스율 등이 일본을 비롯

한 동양권의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는 나타나 있지만 십대 성문제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임신율은 낮아지더라도 미혼모는 더욱 저 연령화 되고 있고 절대적인 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한인영, 1998). 최근 십대 여학생의 성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이성교제율이 48.1%, 성 경험률이 4.5%, 임신 경험률이 0.5%, 낙태 경험률이 0.4%, 성병 경험률이 0.8%, 피임 경험률이 3.4%에 이르고 있다(장순복 외, 2001: 921-931). 이 시기의 성경험은 단순히 성경험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행동, 청소년 범죄 등과 중복적인 양상을 보이고, 성경험을 조기에 경험할수록 성 건강 수준은 낮아지고(Markey, 2000: 93-103),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이선경, 2000), 그들은 원치 않는 성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진다(장순복 외, 2001: 921-931).

또한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학생은 결과적으로 낙태, 생식기 감염, 불임, 자궁외 임신 등의 신체적인 문제와 불안, 우울, 죄책감, 자존감 저하, 성정체감 손상, 성역할 혼돈, 사회적 고립, 학업의 중단, 인간에 대한 불신, 결혼 부적응, 양육의 어려움 등의 전 생애 지배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최연순 외, 1999; Markey, 2000: 93-103) 이들에 대해 다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성비행과 십대 임신, 성폭력 문제 등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후 학교 성교육은 처음에는 정결교육, 순결교육이란 명칭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1982년부터 성교육이란 정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최선영, 1993).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증가, 각 청소년 유관단체에서의 다양한 성교육 및 성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과 중·고등학교용 성교육 교과서의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인 자료구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의 내용분석이나 요구도 조사를 보면 학교 성교육이 아직도 남녀의 신체적 구조와 이차성징만을 가르치는데 머무

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성교제 갈등해결이나 성적 자율성 확립에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대부분 아우성, 성폭력 상담소, YMCA 및 가족 보건복지협회 등과 같은 기관 및 단체에서 성상담을 의뢰한 대상자에 기초하여 일반 청소년의 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연구, 구병삼 외(1996: 1007-1016), 박영주(1998: 573-582), 이찬 외(1999: 307-320), 장순복 외(2000)등의 성경험이나 임신, 출산, 낙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이거나, 계수연·문인옥(1999: 137 - 155), 김현경 외(1999: 167-185)등의 중,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및 성요구도에 대한 연구들이다. 성 경험 관련 요인 분석연구(김현숙, 1999: 339-356; 한성현 외, 2000: 19-39)에서도 대부분 인구학적 요인이나 흡연,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과 같은 요인에 관한 단순변인에 대한 분석이므로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은 임신이나 성병 등의 생물학적 문제만을 예방하는 데 국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성경험을 늦게 하고, 성경험으로 인한 정신·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성적 자율성을 지녀 성건강을 유지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생식 건강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 증진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위해서는 성관련 경험의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고위험 대상자를 미리 사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십대 여학생의 성건강의 유지와 성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성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통해 성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 검증한다.

셋째,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다.

넷째, 십대 여학생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방안을 확인한다.

### 3. 용어 정의

#### 1) 성 관련 경험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신체적 접촉의 정도를 의미하며(윤가현, 1998), 본 연구에서는 십대 여성들이 13~19세 사이에 겪었던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피임, 임신, 유산, 돈을 받고 성교, 출산 등의 경험을 총칭하며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2) 가족요인

본 연구에서는 가족애착을 말한다. 가족애착은 가족과의 친밀도, 가족과의 대화정도, 가족의 감독정도를 측정하는 김준호·박정선(1995)의 가족애착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3) 학교요인

본 연구에서는 학업전념, 학교개입정도, 학업 성취를 말한다. 학업전념은 학업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그것에 몰두하는가의 정도를 허쉬(Hirschi, 1969)가 전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취지향도 도구(Index of Achievement orientation)를 손정남(1999)이 번역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학교개입은 학교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가의 정도를 허쉬(1969)의 개입도구에 기초해 청소년 지도육성회(1988)에서 수정·보완한 학교개입에 대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학업성취는 지난 학기 자신의 학급에서의 등수를 퍼센트로 환산한 점수로 상위퍼센트를 말한다.

### 4)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자기를 기술하는 행동특성으로(신종순, 1990), 본 연구에서는 성 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을 말한다. 성역할 정체감은 인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김영희(1994)의 한국 성역할 정체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도구를 전병재(1974: 109-129)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5) 성격요인

성격은 내적이고, 독특하고, 지속적이며, 활동적이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통합적인 특성으로(Nathan, 1988: 183-188), 본 연구에서는 감

각추구성향으로 모험심, 충동성, 탈억제에 대한 특성을 말한다. 퍼거슨과 발렌티(Ferguson · Valenti, 1990; 1991: 303-318)가 개발한 감각추구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6) 태 도

태도는 주어진 행동과 관련된 규범적 태도나 평가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Akers, 1998), 본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태도로 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내지 보수주의적 태도를 말하며 허드슨(Hudson 외, 1990)의 성태도 도구를 김영혜(2000: 1556 - 1567)가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7) 차별적 교제

차별적 교제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동료로부터 일탈적 태도, 가치, 동기, 충동 등을 학습하여 집단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구창모, 1991),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의 정도와 친구와의 교제정도를 말한다. 이성교제 정도는 이성과의 교제빈도, 교제시간, 기간, 남자 친구의 수 등을 의미하며,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근거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친구와의 교제정도는 동성친구중 성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를 의미하며,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근거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8) 자기통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켄달과 윌콕스(Kendall and Wilcox, 1979: 1020-1029)의 자기 통제 평정척도(self - control rating Scale: SCRS)와 험프리(Humprey, 1982: 2060)의 T-SCRS도구를 청소년에 맞도록 김현숙(1998)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9) 자기효능감

어떤 결과를 얻고자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1977: 191-215),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믿음과 자신감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구되어 지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셰레(Sherer)와 매독스(Maddux, 1982: 193-202)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Ⅱ. 이론적 배경

1. 성 관련 경험
2. 성 관련 경험 영향요인



## II. 이론적 배경

### 1. 성 관련 경험

성은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의하여 학습되며 표출된다. 이것은 인간의 성이 사회구조 속에서 창조되고 또한 통제되고 있으며, 성에 대한 규범과 가치체계는 그 사회의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의 사회상황은 개방화, 국제화 시대이며,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향락 문화의 발달, 성의 상품화,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 서구식 사고방식의 유입,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성에 대한 노출, 바람직한 성교육의 부재 등이 성의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김현숙, 1999: 339-356).

인간이 성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이 특별히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인생 전반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매우 극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문인옥, 1997: 95-112).

이성교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의 하나로 이성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계 형성을 배우게 되는 긍정적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이 처한 성문화는 남성 우월주의, 남녀에 따른 이중 기준의 적용, 상업주의, 가부장적 위계구조, 성적으로 무지한 상황에 있고, 또 한편은 성해방의 기류 속에서 자율성이 없는 무제한의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중매체의 지배하에 있다. 십대 여학생들은 이러한 성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조영미, 1999: 11-43).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손쉽게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또래 이성친구에게

파급하기도 한다. 십대 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벼운 성 접촉으로부터 이어지는 성교경험은 임신, 낙태, 성병 감염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혼모, 학업의 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개인적인 자부심의 저하, 성 정체성의 혼돈, 이성에 대한 불신, 사행아 출산,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탈락 등의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되며, 불임, 자궁외 임신, 전치 태반 등의 전 생애적인 성 생식 건강문제와 함께 양육의 문제, 결혼 부적응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발단이 된다(최연순 외, 1999).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성 행동은 자위행위, 이성교제, 신체접촉이나 키스 등과 같은 간접적인 성관계 경험이나 성교와 같은 직접적인 성관계 경험 등이 있다(김기환, 1999: 193-196). 심리학자인 헝거포드박사는 성의 사다리를 소개함으로써 이성교제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는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첫 단계가 ‘상호주시’로부터 ‘간단한 대화’, ‘계획을 짜기’, ‘산책’, ‘계획의 공유’, ‘말하면서 접촉하기’, ‘함께 웃기’, ‘소망의 공유’, ‘팔짱을 낀 산책’, ‘형식적 포옹’, ‘사랑해’, ‘애매한 키스’, ‘완전한 포옹’, ‘간단한 신체적 접촉’, ‘프렌치 키스’, ‘가슴 만지기’, ‘애무’, ‘성관계’단계까지 있다고 하였다. 이때 ‘상호주시 단계’로부터 ‘팔짱을 낀 산책’까지의 단계는 우정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접촉이며, ‘말하면서 접촉하기’ 단계로부터 ‘프렌치 키스’의 단계까지는 상호 애정을 느끼는 단계이며, ‘말하면서 접촉하기’단계로부터 ‘성관계’까지는 직접적인 성교단계라고 하였다. 의미있게 살필 것은 상호 겹쳐지는 부분인데 ‘말하면서 접촉하기’, ‘함께 웃기’, ‘소망의 공유’, ‘팔짱을 낀 산책’은 우정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애정의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사랑해’하고 말하는 단계, ‘애매한 키스’, ‘완전한 포옹’, ‘간단한 신체적 접촉’, ‘프렌치 키스’의 단계인 경우에는 애정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성교의 전 단계이기도 하다. 친밀감을 발단으로 하는 신체적 접촉의 과정에서 남녀가 인지하는 친밀감의 단계와 그 친밀감에 해당되는 상호

용납되는 그러나 이런 접촉의 과정에서 서로가 느끼는 친밀감의 단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서로가 접촉을 통하여 기대하는 마지막 성접촉의 단계도 서로 다를 것이고 같은 성접촉이라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이선경, 2000).

대략적으로 남자는 12세에서 14세 전후, 여자는 13.5세에서 16세 사이에 이성접근 욕구, 성적 관심, 키스 욕구 등의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 평균적으로 15세 이후인 청소년 중기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한다(강태순, 1993).

우리나라 십대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찬 외(1999: 307 - 320)는 37.9%, 김태근(1997)은 남학생 61.65%, 여학생 51.65% 등 고등학생의 59.8%가 이성교제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성교제 중이며, 차은석(1999)은 이성교제율이 여학생은 48.1%, 남학생은 49.8%라고 하였다. 장순복 외(2000)는 12,733명의 십대 여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고2 여학생 중 53.6%로 나타나 약 반수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성교제 과정 중 신체적 접촉은 어깨동무의 경우 대상자의 54.2%(차은석, 1999), 손잡기는 63.1%(장순복, 2000)~66%(박성정, 1996)까지 보고되었다. 가벼운 뽀뽀 41.2%, 키스 33.7%, 가슴 만지기 12%, 성기 만지기 6%, 성교 6% 등을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장순복, 2000). 이성교제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성접촉의 최종적인 단계는 키스로 26.7%를 차지하였다. 청소년의 키스나 애무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이 30.9%, 2학년 45.2%, 3학년 56.3%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이성교제율과 함께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김태근, 1997). 키스, 애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성교 경험률까지 함께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 중 성교경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키스경험으로 나타났으며, 키스경험은 키스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10배의 성교경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양재 외, 1998).

청소년의 키스나 애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성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이성교제 시 신체 접촉의 허용 정도가 키스나 애무 및 육체적인 성교까지라고 대답한 학생이 인문계 69.1%, 실업계 68%였으나, 성 경험이 없는 학생군의 경우 불과 인문계 15.2%, 실업계 2%로 성 경험 여부에 따라 키스나 애무에 대한 인식도 매우 차이를 알 수 있다(장순복 외, 2000).

십대 여학생의 성에 대한 느낌은 고2 학생에게서 '어색하다' 34.2%, '자연스럽다' 26.6%, '관심이 없다' 17.8%, '소중하다' 11.6%, '아름답다' 6.7%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십대 여학생의 이성교제 방법은 고2 여학생의 경우 53.7%가 '이야기한다', 40.8%가 '전화로 수다', 37%가 '그냥 걷는다'. 34.8%가 '노래방 간다'. 33.6%가 '음식을 먹는다'. 21.1%가 '영화를 본다'. 18.8%가 '차를 마신다'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술 마신다' 17.5%, '전자 오락한다' 15.8%, '스킨쉽 한다' 15.6%, '성 관계를 한다'도 1.7%로 중 3때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기간은 고 2학생의 32.7%가 경험이 없으며, 17%가 2- 3개월, 10.7%가 22일 - 1개월, 10.4%가 1년 이상, 6개월 - 1년이 9.3%, 14 - 22일 3.8%, 7 - 14일이 3.1%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30.1%가 1- 3시간동안 만난다고 하였다(장순복 외, 2000).

십대 청소년의 성교 경험률은 이선경(2000)의 연구에서 이성교제 경험자 중 4.9%, 박영주(1998)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5.2%, 장순복(2000)의 연구에서 7.5%, 이양재 외(1998)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13.7%, 여학생 8.7%, 남학생 17%, 및 김승목(1996)의 15.6% 등에 이른다. 학년별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은 9.9%, 2학년은 10.4%, 3학년은 19.8%로 2, 3학년에 성 경험 비율이 2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태근, 1997). 십대 여학생의 첫 성교 연령은 16 - 20세가 72.1%로 가장 많고, 10 - 15세 27.3%, 10세 미만 0.6%로 나타났다. 성교 이유는 호기심으로 60.1%, 술 취해서 31.3%, 심각성을 몰라서 27.7%,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24.2%, 거절하면 기분 나빠 할까봐 22.1% 등으로 나타났다(장순복 외, 2000).

이성교제와 성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은 인문계 8.7%, 실업계 15.7%로 나타나고, 이성교제경험이 없는 학생 중에서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은 인문계 1.2%, 실업계 3%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 군의 성교 경험률이 5배에서 8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성교제 중인 청소년인 경우의 성교 경험률은 인문계 16.3%, 실업계 25%로 나타나,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교 경험률보다 5배 ~ 24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이양재 외, 1998). 이선경(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경우에 성교 경험이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 이성교제 하는 것이 일찍 성교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성적 친밀감이 점점 애무나 성교와 같은 행위로 진행된다(Chilman, 1983: 191-217). 이는 이성교제 중인 청소년들이 성 접촉 및 성 관계에 이르게 되는 위험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영주 등(1998)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십대 여학생 11,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경험자는 0.7%였으나, 장순복 외(200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0.5%, 고2 여학생의 0.5%가 임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98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경험자 중 53.9%는 낙태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낙태자 중 38.1%는 임신 4개월 이후에야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 중 23.4%는 합병증을 겪었고, 77.8%가 일주일 이내에 성관계를 다시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영주, 1998). 이와 같이 성관계와 관련된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낙태가 여성의 몸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거나 지식적으로는 알더라도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자신의 소중함을 과소 평가하거나 혹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불안정한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장순복 외, 2000).

성행동의 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손잡기나 포옹보다 애무나 성관계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행동을 경험한 이성 수는 여고생의 경우 1- 2명이 34.3%, 3-4명이 14.8%, 5명 이상이 4.6%로 나타났다. (이정은, 1998). 또한 십대 조기 성교는 신체적으로 임신 횟수의 증가, 더 많은 성파트너, 성병의 증가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Wyatt · Durvasula, 1999). 또한 조기 성교는 여성이 불임이 되고 자궁암에 걸리는 몇 가지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성문화 연구소, 1996). 십대의 성교의 특징적 현상은 성교 시도자체가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Kinsman, 1998: 1185-1192), 피임을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될 확률도 높다.

청소년의 성 고민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37.6%가 성 고민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성교제 문제가 44.7%, 월경문제 33.1%, 성적 성숙 문제 13.1%, 자위행위 4.4%, 성 충동 3.8% 등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이성을 사귀어 보고 싶은 요구가 억제되거나 실제로 교제 중이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사귀거나 불건전한 성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고민한다고 하였다(이찬 외, 1999: 307 - 320).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임신 실태와 관련하여 1986년 WHO가 지적한 청소년이 당면한 무방비적인 성교, 임신, 낙태, 미혼모, 성병 감염 등의 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러한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 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1991년에서 1997년까지 청소년 성경험률이 11%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성교연령은 계속 하향화되고 있어(CDC, 1998: 749-752),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첫 성교연령이 14.8세로 나타났고(Brindis 외, 1994: 160-164), 여자 청소년의 20%가 13세에 성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50%가 15살에 시작하였다(South Carolina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al Control, 1997).

1998년 WHO HBSC 조사보고서에서는 첫 성교연령이 낮아지고, 성행동의 급작스런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성행위나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위험한 성행위 등이 증가되어 낙태, 알코올 남용, 약물사용, 성장장애, 정신적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WHO, 1998). 이와 같이 조기 성교는 높은 임신율과 성병감염율과 관련성이 있다(Henshaw, 1997: 115-122).

1990년 영국의 18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신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6 - 19세의 여성 1,000명중 임신율은 36.6 - 94.8명, 인공 유산율은 22.7 - 49.3명, 출산율은 12.6 - 63.6명이었다(Garlick 외, 1993: 135-139). 미국 질병통제 센터(CDC)에서 10대 여성의 임신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환산시 보건 비용이 1,203만불 소모되었는데 이중에서 480만불은 출산연령이 적어도 20세 이상이었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pitz 외, 1993).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외국에 비해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이 비교적 적지만, 점차 경험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고, 십대 여학생들은 반수정도가 이성관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십대 여학생들이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서의 이성간의 교제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지만 이성간의 신체적 접촉허용에 대해서는 인식수준보다도 더 많은 분포로 성관계나 키스, 애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의 의식수준은 보호적이나 행동수준은 의식수준에 비하여 무방비적이라고 해석된다(장순복 외, 2000). 또한 청소년기는 예민하고 감수

성이 풍부한 시기로서 손잡기나, 키스 정도로도 성행동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자극이 된다(Smith 외, 1985: 1200-1203). 따라서 데이트를 시작하는 시기와 이성교제 관계의 발달은 성적 행동의 개시에 대한 실질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 2. 성 관련 경험 영향요인

### 1) 가족요인

가정이란 공동의 주거, 경제적 협력, 생식 등의 특성을 갖는 사회 조직의 하나로 대면적 관계를 중시하는 일차적 집단이며,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며 성장한다. 그 속에서 초기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기초를 형성한다. 청소년이 가정의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적절한 애정과 문화적 혜택, 그리고 정서적 안정 등을 갖지 못할 때,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서는 가족구조의 결함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 김준호·김은경(1995)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결손가정 여부는 남녀 모두 모든 비행, 즉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에 있어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몰 외(Small 외, 1994)는 편부가정, 이혼가정, 재혼 가정 등에서 청소년 성활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편부는 자녀 탐지 기능이 약하고, 자녀의 후견권을 갖은 편모는 자녀를 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칠맨(Chilman, 1983)은 편부모가정의 자녀가 일찍 성교하며, 특히 부모가 일을 하느라 집에 십대가 혼자 있을 때 성교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십대 자녀 중 많은 수가 낮에 부모가 없는 집에서 강한

성적 유혹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강영실(2000)의 연구에서도 이혼, 별거로 인한 친부모와의 비동거가 재임신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결손이 성적성숙, 초경시기와 성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결손가정의 자녀가 성적 성숙이 빠르고(Urdu · Cambell, 1994: 187-207), 초경연령이 빠르며(Surbey, 1990: 11-32), 성활동을 일찍하고 임신하게 된다(Urdu · Cambell, 1994: 187-207). 이는 아버지의 부재로 사춘기 동안 성선 자극호르몬과 부신피하호르몬의 분비를 일찍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양아버지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양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만 사는 여자 청소년보다 초경이 빨랐다.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안 계시는 여자 청소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보다 일찍 성숙하는데 이는 이혼 전에 부모간의 가족갈등이 딸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아버지와 딸간의 친밀감 감소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없는 가족에게서 어머니의 초경시기와 첫 데이트 시기가 빨랐으며, 남자나 가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딸도 어머니를 닮아 일찍 초경하고 일찍 데이트하며 가족에 대해 부정적이며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다고 했다(Surbey, 1990: 11-32). 따라서 십대에게 역할모델들은 위험행동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Yancey 외, 2002: 55-61).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 즉, 부모의 감독, 애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족들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3). 김준호 · 김은경(1995)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전체비행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감독정도, 그리고 애착 등 과도 상호연관성이 있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감독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성비행에는 부모의 감독이 부모의 애착보다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부모 - 자녀의 관계도 성에 따른 차별적 관계양식 속에서 움직여지며

처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행위양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Small 외(1994)는 부모와 딸의 대화가 높고, 부모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정의 딸이 성 활동을 덜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부모와의 대화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모와의 밀착감 및 지지와 마찬가지로 친밀감이 성교를 늦게 경험하게 하는데 관련이 있다(Brooks-Gunn 외, 1989: 249-257). 또한 성관계 경험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성관계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성문화연구소, 1996). 강영실(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의 질적 수준이 청소년의 재임신 경험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행동의 위험은 부모의 지지가 적고, 가족의 활용성이 제한적인 경우에 많다. 이는 가정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위를 발달시키고, 모험추구수준을 낮게 유지하도록 하지 못한 환경 때문일 수 있다(Kim, 1995).

이러한 가정요인들이 비행을 설명하는 정도가 남자 청소년은 26%정도였지만, 여자 청소년은 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은 가족요인들과 관련이 깊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준호·김은경, 1995). 또한 이러한 가족애착과 같은 가족요인들은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예측요인에서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정남, 1999). 이상과 같이 가족의 측면이 성 관련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 2) 학교요인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학벌 중시 사회에서는 학교에서의 역할 및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긍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와 어울리거나, 자신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갖게되어 청소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허쉬(1969)의 비행이론에 의하면 관습적 유대의 중요한 요소인 전념(Commitment)과 개입(Involvement) 등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및 학업에 대한 태도나 인식과 직결된다. 김준호·김은경(1995)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에게서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이 비행의 가담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특히 지위비행,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와 성 관련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지적능력이 낮을수록 성 활동에 참여가 높고(Small·Luster, 1994, 재인용), 학업성취도가 낮고 교육적 열망이 낮은 청소년들이 성 경험이 많으며(Meilman, 1993: 27-31),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서 임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ingh 외, 2001: 251-258). 밀러(Miller 외, 1992)는 학업성적과 학습기술이 높은 10대들이 성 활동을 연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배미영(2000)의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양미(2000)의 중학생의 성 행동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적이 상인 경우가 중하, 중, 하인 경우보다 성 행동 경험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성적이 성 경험과 관련은 있으나 관계방향이 반대로 나타나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서 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개입과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로 이양미(2000)의 연구에서는 방과후 혼자 있는 정도가 자주 있는 학생의 경우가 전혀 없는 경우보다 성경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주 결석하는 학생이 결석하지 않는 학생들 보다 성활동과 같은 위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ttmacher, Weitzman, Kapadia, Weinberg, 2002: 235-237).

이러한 학교관련변인들은 여학생 비행의 59%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변인들 보다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 김은경, 1995). 이상과 같이 학교 관련 요인들이 성관련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지지해주고 있다.

### 3)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자아태도의 집합으로서 단일화된 요인이 아니며, 각 개인은 특수화된 지각에 관련된 많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인간 자신에 대한 개념은 수많은 대상에 대한 개념만큼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다(송인섭, 1990). 이러한 자아개념 중 자기 특성에 대한 가치를 기술한 것이 자아존중감이다(신종순, 1990). 자아존중감의 동기는 자신을 좋게 생각하려는 소망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은 행위에 동기를 제공하는 원동력으로 주장되기도 한다(Rosenberg, 1979).

로젠버그(1979)는 자아존중감이 다음 네 가지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한다. 첫째, 반영된 평가, 둘째, 사회적 비교, 셋째, 자아귀인, 넷째, 심리적 중요성이다. 반영된 자아라는 것은 미드(Mead)의 이론에 기초하여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타인이 보는 데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비교는 인간은 또한 다른 사회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또한 자아귀인은 벵의 이론에 기초하여 인간이 자기의 태도, 감정 및 기타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나 또는 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중요성은 자아개념의 각 요소들(지능, 도덕심, 친절, 사회적 지위 등)이 단순히 집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개념에의 각 요소가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고려되어야 한다

(Rosenberg, 1979).

김준호·김은경(1995)은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의 여부가 비행과 별로 관련이 없지만,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과 비행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지표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회적인 반응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비행자로서의 낙인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내면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십대 청소년의 비행행위와 성경험률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비행청소년이 이성교제율이 높고(함웅, 1985), 성경험 및 임신과 음주, 흡연, 환각제, 가출 등의 비행에 중복성을 보였다(이양재, 1998). 자아존중감이 낮은 십대들은 종종 잘못된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성을 이용하기도 한다(윤명선, 1999).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의 경험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경험을 최대화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Kaplan 외, 1986), 적절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유지 할 수 없는 사람은 적절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보다 자아존중감의 대안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민수홍, 1996). 자아정체감이 혼란되어 있는 여성은 타인에 대한 동조가 쉽고, 불안, 증오,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Todler·Marcia, 1973: 287 - 294) 동조를 요구하는 남성의 위력에 쉽게 굴복하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성행동을 가져오게 된다(배미영, 2000).

자아존중감과 성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 접촉을 전혀 하지 않은 군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제일 높아 청소년기에 선택하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접촉을 하지 않을 때 십대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또한 성 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떨어졌다. 특히 성관계 단계에서 자아존중감 평균 값이 현저하게 낮았고, 키스한 그룹, 가슴 만지기, 가벼운 뽀뽀, 어깨동

무, 손잡기 등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성 접촉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뽀뽀, 어깨동무, 손잡기 안한 군의 자아 존중감이 키스나 가슴 만지기를 한 군이나 성 관계를 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키스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선경, 2000). 여러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여학생이 성교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Orr 외, 1989: 86-90; Kali · Kunz, 1999), 자아존중감과 통제부족이 조기 성경험과 관계가 있다(Small · Bogenschneider, 1994). 배미영(2000)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위기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존심이 낮고, 자신감이 없고, 참을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따지지 못하며,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충동을 억제하는 통제능력의 부족은 약물남용, 무분별한 성행동 같은 위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정은, 1998).

개인은 출생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 중 한 사회집단에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남녀 각 구성원에게 동일시되는 행동형태를 성역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Hurlock, 1983). 이러한 성역할은 개인의 자아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lock, 1973: 135-144). 성역할 사회화과정은 사회의 역할 규정과 개인의 역할 수행 사이의 연결을 이어주면서, 이 연결과정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된다(김영희, 1986). 즉 성역할 정체감은 성정형화 과정의 결과 각 개인에 의해 성역할 행동이 어느 정도씩 습득되면서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정진경, 1987). 따라서 개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성을 확인하고 판별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의 성역할 정체감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형태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게 된다(김영희, 1994).

성 역할 정체감의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로 분류할 수 있다. 남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남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들로 남성성변인의 점수는 높고, 여성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여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성 변인의 점수는 높고 남성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성변인과 여성성 변인 모두 높은 경우이다. 미분화 정체감은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김영희, 1988: 172-182).

벵(1974)을 비롯한 근래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성역할의 이상적인 모델로써 남성성, 여성성을 포함하는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은 행동에 유연성이 있고, 자긍심이 높고 성취지향적이며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더 지적이라고 하였다. 길리건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도덕적 문제에 접근하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으며 남성성 지향과 여성성 지향이 통합될 수 있을 때 최상의 인간다움이 발휘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장휘숙, 1999: 199-200. 재인용). 따라서 정부와 학계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성역할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교육부, 1999).

정체성의 발달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는 정체성 혼미에 빠지기 쉽고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열망하는 이성지향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면 청소년 자신의 성적 모호성은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장휘숙, 1999: 199-200).

일반적으로 여성비행은 성적 자질이나 성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김준호·김은경, 1995). 여성이 참여하는 비행은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된다고 한다(Adler, 1975). 성역할 사회화가 소년들에게는 비행으로 이끌릴 수 있는 태도와 관심, 인성을 갖도록 사회화되는 반면에 소녀들은 비행을 제어하는 태도와 이해, 심성을 갖도록 사회화한다(김준호·김은경, 1995). 즉 여성성은 행위에 대한 통제로서 개념화되기 때문에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좀더 통제를 받기 쉽다. 반면에 남성성은 비행과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소년들은 비행을 자신의 역할에 우호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는 것이다(Wilkinson, 1978). 성역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양성성은 성전형화된 성격보다는 좀더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성의 여성들이 비행가담율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다(Loy 외, 1981: 275). 또한 양성적 유형의 아동은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적인 남성적인 특성과 민감하고 온정적인 여성적 특성을 고루 공유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 적응도가 높았고, 양성적 유형의 아동과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또래 집단에서의 인기도가 높았다(최순남, 1999). 그러나 비행집단이 비행하지 않은 여성집단보다 더 남성적인 것으로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여성범죄자 표본 내에서 여성성이 범죄가담과는 역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적이지 않을수록 전과 유형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dom, 1979: 365). 김준호·김은경(1995)의 여자 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행성향을 나타내며, 다음으로는 양성성이 비행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행성향이 낮은 집단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여성성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을 세분화했을 때 여자 청소년의 성비행에 있어서는 성역할 정체감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은석(1999)의 중학생의 성행위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여성관은 학생들의 성태도와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성접촉 수준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 결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정체감은 성 관련 경험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성격요인

성격은 사람들의 태도가 행동에 다르게 영향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좋은 변수이다. 즉 성격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Cacioppo 외, 1989: 311-338). 그러므로 성격은 태도와 행동모두의 선행요인이 된다. 성적으로 억제력이 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험을 보다 일찍 하며, 관계에 있어 심각하지 않고 동시에 한 명 이상과 관계를 가지며, 여러 명의 성 상대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절제가 없는 경향은 성격이나 성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 또는 이 두 요소 모두에서 기인하는데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은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종권 외, 1994).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성활동은 모험, 비규범적이거나 문제행동의 잠재적인 특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Donavan 외, 1988: 890-904).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하기로 하는 결정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것을 반영한다(Hayes, 1987: 329-334). 청소년들은 사고능력의 제한 때문에 위험행동에 관여할 수 있다. 즉 위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Chilman, 1980). 청소년들은 행동과 관련된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잘 모르므로 충동에 크게 좌우되어 선택을 하며, 그 행동이 자신에게 현재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위험행동을 한다(Shafer, 1988).

모험추구 경향은 유혹적 자극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험심은 감각추구와 동의어라 할 수 있다(Zuckerman 외, 1972: 308-321). 연구자들은 모험추구경향에 따라 모험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며(Ferguson

외, 1990; Weinstein, 1989: 23- 39), 모험성 경향이 에이즈 위험에 대한 태도 변량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sorrrsa 외, 1988: 275).

감각추구는 탈억제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성격 특성이다. 이는 다양하고 놀랍고 미묘한 감각과 방편을 요구하고, 이러한 경험을 위해 신체적, 사회적 모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Zuchman, 1986). 감각추구는 건강위험 및 환경적 위험과 관련성이 높고,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측한다(Ferguson 외, 1991). 또한 감각추구가 위험한 성행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Arnett, 1991: 1305-1313), 위험한 성행위의 7%를 설명한다(Gillis 외, 1992: 37 - 40). 이러한 감각추구는 성교경험 및 즉흥적인 성교 등과 관련이 있고(Kraft · Rise, 1994: 193-200), 감각추구가 높은 사람들이 최근 5년 반 동안 성상대자가 많았고(Kraft · Rise, 1994: 193-200; Sheer · Cline, 1994: 280-304), 성교시 보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험행동에 많이 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er · Cline, 1994: 280-304). 감각추구성향은 성 파트너 수를 16%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er 외, 1994: 280-304).

성격의 충동성 측면에서는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자들이 이성교제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비해 무분별한 행동적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 1998). 이상과 같이 감각추구 성향과 같은 성격특성이 성 관련경험과 관련성을 지지하고 있다.

## 5) 성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의 태도가 실제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혼전 성 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성행동의 강력한 예언 요소로 나타났다(이정은,

1998).

청소년의 성태도는 일반적으로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김상원 외, 1997; 이영숙, 1995; 이찬외, 1999) 및 허용성의 정도(이상훈, 1995)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김상원 외(1997)는 전국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1%가 혼전 성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이찬 외(1999)의 연구에서는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태도가 60.1%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은 3,50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32%, 여학생의 39%에서 혼전 성교가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성교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도 25%에서 혼전 성교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Zabin 외, 1984).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순결에 대한 가치관이 외국에 비해서는 보수적이지만,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으며, 점차 개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와 성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혼전순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혼전순결을 지켰을 경우에 기대되는 긍정적 결과를 인지할수록, 혼전 성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인식할수록, 그리고 부모와 사회의 인식 및 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많이 접할수록 혼전 순결 의지가 높았다(이선희 외, 2000: 1-14). 김현숙(1999)의 연구에서도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할 가능성이 낮아도 성교 할 수 있다’,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교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찬성할수록 남녀 모두 성경험이 많았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또한 김주연(1993)의 연구에서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키스경험, 자위행위, 성교 경험 등 성 관련 행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혼전 성경험자가 많으며 성에 대한 허용적인 성태도가 혼전 성행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상문, 1995). 성적 표현에 대해 자

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혼전 성 경험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이정은, 1998. 재인용). 또한 성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허용적인 성 태도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허용적인 성 태도가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Nancy, 1992).

이정은(1998)의 연구에서도 성에 대해 허용적 일 수록 이성교제를 하고 성 행동 수준이 높아, 혼전 성 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행동을 할 수 있고, 이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던가 태도에 맞게 행동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아미(2000)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 일 수록 이성친구, 포옹하기, 입맞추기, 패딩, 성행위와 정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쾌락형인 경우에는 입맞추기와만 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쾌락형보다 허용형이 문제행동과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실(2000)의 연구에서는 재임신 경험 청소년이 임신 1회 경험 청소년에 비해 혼전 성 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다수와 성 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 절제에 대한 가치관이 성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 Norton, 1998).

그러나 성태도와 성경험이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차은석(1999)의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성 접촉수준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배미영(2000)의 연구에서도 미혼모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개방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이러한 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계수연·문인옥(1999)은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과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선희 외(2000)는 혼전 순결의지에 부모나 사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켈비(Mckelvey 외, 1999) 및 다이로리오(Dilorio 외, 1999)는 성지식이나 성 정보의 입수경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란물 접촉 관련 특성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양과 질 등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많은 연구에서 성에 대한 태도가 성 경험과 관련성이 있음을 지지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학교요인이 성태 대한 태도에 영향하고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 6) 차별적 교제

차별적 교제는 타인과의 직접, 간접,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교제의 상대적 빈도, 강도, 기간, 우선성 등이 순응 또는 비행행위의 강화 정도, 빈도, 강화가능성에 영향 한다(Akers, 1998). 청소년에게 또래결합은 아동과 같이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도 규정되지만, 그 이상으로 정신적 공명, 인간적 애착이 주가 된다. 청소년은 생활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친구를 요구하며, 친구와 인간적 교제를 하려고 함으로 성격 형성시 친구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89). 청소년의 동료집단으로의 동조성은 청소년들이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에서 동료들의 행동방식을 따르게 하며 통일감과 수용의 갈등을 만족하고 또래 집단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최신 유행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김형모, 1996).

성적인 태도, 가치, 행동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보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은 쉽게 획득된다(Billy 외, 1988: 190 - 212). 친구에게 속박된 관계일수록, 친구의 규범이나 요구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수록 또래 집단의 압력이 있을수록, 친구와 나누는 신체와 피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성 활동 위험이 높다.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압력

은 친구들의 위험한 성 행동 규범과 성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따르도록 하며, 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친구 집단으로부터 성에 대한 지식을 처음 접하게 되므로 성 활동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데도 친구들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Mcwhirter, 1988: 140-142). 일탈친구와의 접촉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아지며(이상문, 1995), 가장 친한 친구의 성적인 일탈행동은 청소년에게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Yamaguchi · Kandall, 1987: 257 - 270).

십대 3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 중 17%가 동료 친구들로부터 성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으며, 학생 중 19%는 친구들로부터 성교에 대한 압력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Jordan 외, 1998: 289-296). 또한 성행위를 유발한 여러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료의 태도가 매개가 되어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동기화 시킨다고 하였다(Hornick, 1978: 534-544).

여성들은 성 행동에 있어서 상대 남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즉 남자들은 주로 남성 친구집단의 영향을 받는 반면, 여성들은 성의 상대가 되는 남성에게 반응하여 그가 유도하는 대로 성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Wagner, 1980: 277). 물론 여자친구들도 성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의 데이트 경험, 성 경험에 대화함으로써 성 행동을 자극하고 고무할 수 있다(안순덕, 1985).

성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성 경험 친구의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성현 외, 2000: 19 - 39). 또한 또래의 성적 압력에 더 잘 반응할수록 성 행동 수준이 높았다(이정은, 1998). 이성교제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본인을 제외하고는 친구가 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장순복 외, 2000).

친구가 성 활동을 한다는 사실보다도 친구가 성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더 성에 허용적이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Dryfoos, 1990). 배

미영(2000)의 연구에서 친구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장순복 외(2000)의 연구에서 동료그룹이 성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분포가 45.5%로 실제 성교했다고 응답한 분포인 4.7%로 나타나 실제로 성교한 대상자의 수보다 열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 교제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가족의 애착을 들 수 있는데, 가족애착의 힘은 친구의 선택 혹은 일탈적 집단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경이, 1989).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친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친구와의 교제 및 압력 등이 성관련 경험과 관계가 있고, 차별적 교제는 가족애착의 약화와 같이 인습적인 집단의 결속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 7) 자기통제

자기 통제능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자기 통제 능력은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학교와 사회에서 바람직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기통제란 행위자가 직접적인 외적 영향이 없는 조건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행동통제이다. 이는 자극과 반응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자신의 자극에 대한 인지적 경향이 행동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기 통제가 외적 통제보다 행동수정의 효과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였다(김남성, 1991).

자기 통제력은 여러 특성을 지닌다. 자기 통제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욕구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고 조심성이 있으며, 인지적이며,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

재 지향적인 경향이 있어서 미래에 약속된 혜택이나 이익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성취함에 있어 손쉬운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 행동을 할 때 근면하거나 지속적인 경향이 없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둔감한 경향이 있다. 모험심이 있고, 활동적이며, 몸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좌절을 참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좌절을 경험할 때 이를 말보다는 신체적 수단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Gottfredson 외, 1990). 이러한 자기통제력의 발달은 인생의 초기단계에서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양육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민수홍, 1996).

민수홍(1996)은 자기 통제력은 불법행위와 비행의 유형이나 질의 경중을 떠나서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자녀양육방법이 자기 통제력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강연실(2000)의 청소년 재임신 예방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내적 통제감이 재임신의 주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통제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아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통제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적응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Lowerstein, 1983). 자기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민수홍, 1998; 이성식, 1997) 자아통제성이 문제행동 발생에 억제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소녀에게서 여성성과 같은 성역할 정체감은 어떠한 행동에 대한 통제에 영향할 수 있다고 하였다(Wilkinson, 1978). 따라서 자기통제가 부족하면 문제행동이 유발되지만 자기통제를 강화시킴으로서 중재변수가 될 수 있다.

## 8)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신념이다(Bandura, 1977: 191-215). 자기효능감은 인지작용을 통해 인간의 행동과 동기를 매개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Bandura, 1977: 191 - 215, 1986). 행동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기대 효능감에 의해 결정된다(Bandura, 1986). 자기 효능감은 문제 해결 기술 중 하나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자는 내적인 통제감을 지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나 환경적 요구에서 효과적인 기술과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자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다(Felton · Bartoces, 2002: 59 - 67).

자기효능감은 부정적 행위에 대한 개입압력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Aas 외 1995: 293- 299), 청소년이 문제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이다(Chung 외, 1996).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오복자, 1994).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동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한다(Ludwig 외, 1999: 461-482). 자기효능감은 성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과 직접(Chung 외, 1996) · 간접적으로(Aas 외 1995: 293- 299) 관련이 있어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피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Strecher 외, 1986).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는 자기효능감이 성 관계를 거절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어(Zimmerman 외, 1995: 383- 399, Sioanean 외, 2002: 55-63),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원치 않는 성교를 2.5

배정도 높게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ionean 외, 2002: 55-63). 자기효능감과 같은 문제 해결기술이 낮은 대상자는 일찍 성 활동을 할 가능성이 5배정도 높았다(Felton · Bartoces, 2002: 59 - 67). 12세에서 19세의 학생 2,1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적 가치감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성행위를 하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감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udwig 외, 1999: 461-482).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여고생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고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선옥 · 표내숙, 1996). 또한 성역할에서 여성성인 여고생은 다른 성역할을 지닌 여고생에 비해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홍선옥 · 표내숙, 1994). 성역할 중 양성성인 여고생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그 결과 양성성은 남성성, 여성성, 미분류 모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성은 여성성, 미분류와 그리고 여성성은 미분류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선옥 · 표내숙, 1994). 또한 자기효능감은 의사결정 및 지각된 자기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Chung, 1996)

이상과 같이 자기 효능감은 성 관련경험과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고, 성 관련 경험을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 Ⅲ.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2. 가설적 모형
3. 연구가설



### III.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십대 성행위는 여학생의 성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전에 청소년들이 성관계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는 청소년 비행수준에 가까운 행위로서 청소년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이선경, 2000).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약물사용, 음주, 흡연, 조숙한 성행동, 규칙위반 등이 있는 데 이는 범죄와 지위비행으로 나눌 수 있다(김진엽, 1996). 지위 비행은 음주, 흡연, 조기 성교 등과 같이 어른에게는 괜찮으나 청소년이란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성교 조기 접촉군의 행위는 청소년 지위비행이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사실은 십대 비행과 성행위의 중복성을 설명한 많은 연구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김태근, 1997; 함웅, 1995; Huizinga 외, 1993: 90-96; Miham 외, 1990: 1297-1301).

따라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비행을 설명하는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 및 문헌 고찰에 근거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이들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청소년의 성관련 경험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인에게는 허용이 되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인 지위비행에 속할 수 있으므로 비행이론을 선택하였고, 이들 이론들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론적 관점이 양성을 모두 충분히 설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제이론은 다른 비행이론에 비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irschi, 1969; Krohn & Massy, 1980: 529-543; Watrowski 외, 1981). 또한 사회통제이론은

비행을 위한 특별한 동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제의 부제만으로도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김준호·김은경, 1995). 허쉬(1969)의 사회통제이론은 기본적으로 홉스(Hobbes)의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고 비행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법은 그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의 구현체이기 때문에 1) 비행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나 기대에 반대되는 것이며 2) 형벌의 위협을 포함하고 있으며 3)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4) 인습적인 도덕적 신념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가정들을 수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가정들이 사실이라면 가장 일탈되기 쉬운 사람들은 1)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나 기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2) 형벌의 위협에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3) 그러한 행위에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4) 비행에 반대하는 도덕적 규범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일 것이다(Hirschi, 1977: 322-341). 사회통제이론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일탈 동기를 갖고 있으나 내외적 사회통제와 사회적 유대로 인해 규범에 동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대 및 통제의 약화결과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네 가지 유대요소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개입(Involvement), 신념(Belief)을 주요개념으로 들고 있다.

애착은 사회적 유대의 애정적인, 감정적인 요소에 관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비행의 직접적인 통제요인이며 부모의 애착이 약할수록 비행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ndenlang, 1973; Hirschi, 1969). 특히 가족에 대한 애착은 여성비행의 가장 중요한 인과적 요인으로 간주된다(Chilton · Markle, 1972: 93-99). 여자들은 타자와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는 반면,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좀더 독립적이고 타자와의 감정적인 유대를 덜 맺도록 고무되는 경향이 있다(Bardwick · Douran, 1972). 애착 중 친구에 대한 애착은 친한 친구에 대한 정서적 동일시나 의견에의 존중을 말

하지만(Akers, 1998), 허쉬의 통제이론이 관례적인 친구와 비관례적인 친구에 대한 애착의 측면에서 재 개념화될 필요성이 있다(Hindelang, 1973). 즉 비행친구와의 애착은 비행의 억제요인이 아니라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애착은 비관례적인 친구와의 관계만 보기로 하고, 이는 차별적 교제라는 차별적 교제이론 변수로 처리하기로 하여 애착의 측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전념(Commitment)은 개인이 인습사회에의 투자한 정도를 말한다. 즉 사회활동에의 전념의 정도가 높은 아이들이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은 비행으로 인하여 그 동안 투자해왔던 사회활동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행위자의 합리적 판단 때문이라고 보며, 사회활동의 전념이 낮은 아이들은 비행을 해도 잃어버릴 손실이 없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성식, 1995: 183-2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투자정도를 말하는 학교전념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개입(Involvement)은 관습적 활동에 어느 정도나 시간을 보내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비행행위는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습적인 활동에 많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비행행위와 같은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Hirschi, 1969). 따라서 개입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비행에 참여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개입의 정도로 측정하기로 한다.

신념(Belief)은 사회의 인습적 가치, 규범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Hirschi, 1969). 본 연구에서는 신념을 규범을 따르는 정도가 아닌 특정행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는 가로 개념화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성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었다(Austin, 1977; Hindelang, 1973; Johnson, 1979; Krohn 외 1983; Lasley, 1988; Wiatrowski 외, 1981). 사회통제이론이 경로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고(Wiatroski 외, 1981), 그 이후 사회통제 이론의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 노력해왔다(이태원, 1990; Johnson, 1984; Massy & Krohn, 1986; Thompson 외, 1984). 이러한 사회통제이론은 양성 모두를 충분히 설명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 통제유형이 소년들보다는 소녀들에게 더 중요하며, 결혼가정과 같은 가족 특성, 부모의 불화, 갈등적인 가정분위기, 훈육과정의 차별성 등은 여자 청소년들과 더 강하게 연관된다(김준호·김은경, 1995). 따라서 가족과의 애착의 약화로 인습적 집단에 대한 동조이익이 약화되고 이것은 미래나 성공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약화되므로 비행에 가담하더라도 잃을 것이 적다는 합리적 판단 하에 본 연구의 개념틀에서도 애착 및 전념이 다른 개념에 선행하여 성관련 경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서더랜드(Sutherland)는 차별적 교제이론은 원래 범죄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근래 이르러 그 기본원리를 청소년 비행에 적용하여 비행행동을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김준호, 1995). 이 이론은 비행행위가 주로 일차 준거집단에 의해 학습되며, 동조자들보다는 일탈적인 행위와 유형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비행자가 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Sutherland & Cressey, 1978).

이 이론은 일탈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9가지의 명제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행동은 학습된다는 것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행동의 학습에 있어 그 주된 부분은 친밀한 개인적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행동이 학습될 때, 그 학습에는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아주 단순한 기술과 동기, 충동, 합리화 및 태도의 구체적인 방향이 포함되고 있다. 다섯째, 동기와 충동의 구체적 방향은 법률적 규범들을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정의하는 데서부터 학습된다. 여섯째, 어떤 사람이 비행자가

되는 것은 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정의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일곱째, 접촉차이는 그 빈도, 기간, 우선도 및 강도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여덟째, 법 위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의와의 접촉을 통한 일탈행동의 학습은 다른 행위의 학습과 같다. 아홉째, 일탈행동은 사회의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일반적 욕구와 가치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다(Sutherland, 1974).

청소년 비행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 비행친구와의 교제, 교제의 빈도, 기간, 강도, 그리고 우선성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차별적 교제이론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비행친구들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더욱 많은 범죄행동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다(Hirschi, 1969). 이것은 대부분의 일탈행동들이 친구들로부터 학습되고 비행친구들은 비비행적 친구들이 규범적 행동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비행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태원, 1992).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동료의 기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Nord, 1969: 174-208) 친구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 교제를 이성과의 교제빈도 및 강도와 친한 친구 중 성 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등으로 조작화하여 측정한다.

그 외 영향요인으로 문헌고찰 결과 자아개념, 성격특성, 자기통제력 및 자기효능감등이 있다. 자아개념 중 자아존중감은 행위에 동기를 제공하며, 사람들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험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경험은 최대화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Kaplan 외, 1986). 집단내 한 성원으로서는 겪게되는 부정적 경험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연결된다.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 개인은 이것을 부정적 경험과 연결 지을 뿐만 아니라 소속집단의 규범적 체계의 다른 측면들과도 연결짓게 된다. 따라서 규범체계가 고통의 근원이 된 개인은 더 이상 소속 집단의 규범적 기대에 순응하려하지 않고 부정

적인 자아존중감의 경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동기가 생겨나 덜 고통스러운 대안을 찾아 나선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비행에 의존함으로써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험을 줄여 나가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행은 자아를 신장하는 행동일 수 있다(Kaplan 외, 1986). 자아존중감과 성경험과의 관계연구를 보면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이선경, 2000).

또한 성역할 정체감 중 양성성 정체감은 전통적으로 성유형화된 개인들보다 성역할 행동을 할 때 더 유연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여성적 특성이라 표현되는 온화함, 모성애 등의 특성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경쟁적이고 독립적 특성을 강하게 띤 남성적 특성의 양면을 조화롭게 지닌다(김영희, 1985: 87). 양성성 정체감은 능력있고, 성취지향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Bem, 1974). 따라서 성 역할 정체감이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지지하고 있다(김준호 · 김은경, 1995; Loy, 1981: 275).

성격은 태도와 행동모두에 선행요인이 되는 것으로 개인의 충동성, 공격성 등은 비행과 관련이 있다(Kaplan 외, 1986). 성격특성 중 감각추구행위는 모험심과 동의어로서 감각추구행위가 성행위 및 성상대자 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Aretti, 1991). 이와 같이 감각추구성향은 직접적으로 성 관련 경험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자기 통제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간접적으로 성관련 경험에 영향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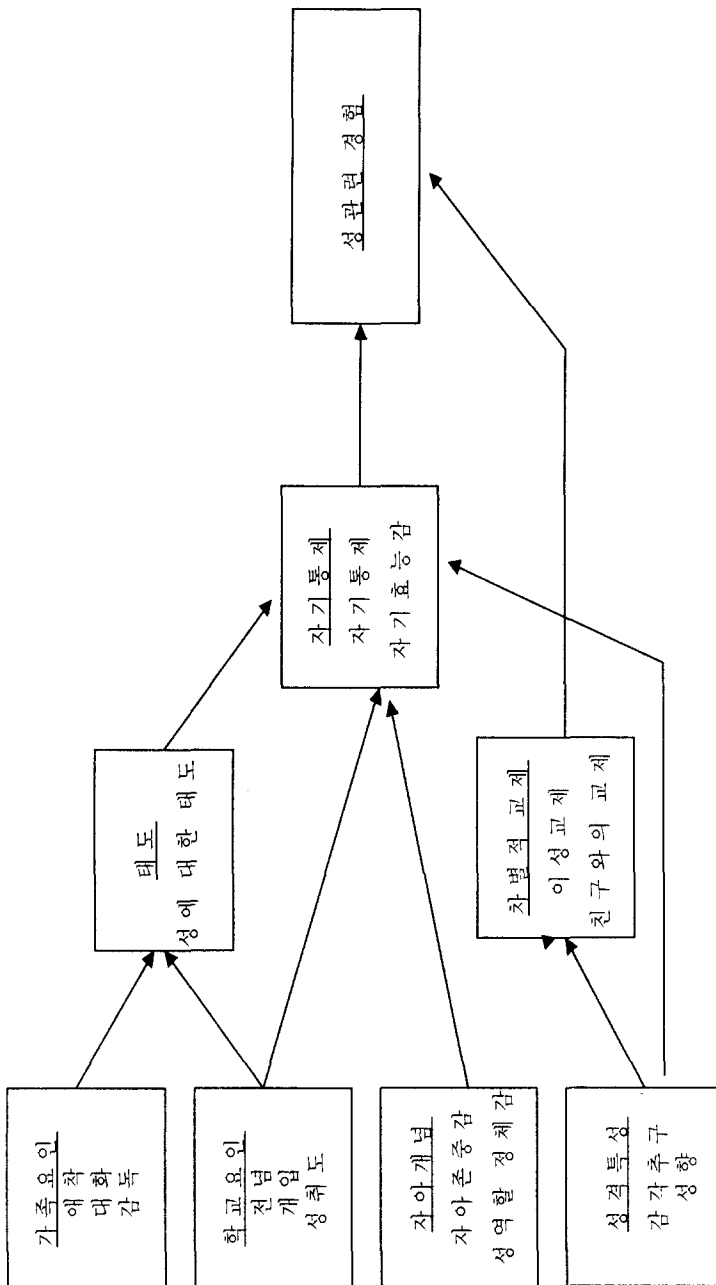
자기 통제력은 어려서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인생의 초기 단계에 성립된 개인간 자기통제력은 한 평생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즉각적이고 손쉬운 욕구 충족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도 저지르기 쉽다(민수홍, 1996). 따라서 자기통제가 낮은 경우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얻기하지 못함으로써 성 관련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여학생들이 억압되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와 교류부족으로 합리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주장능력의 부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적절히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된다.

자기효능감은 의사결정 및 지각된 자기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성행동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Ana 외, 1995).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킴으로서 성관련 경험과 같은 문제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중재 변수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 통제이론의 애착, 전념 및 개입을 의미하는 가족요인과 학교요인,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이 선행하고, 이들 변수들은 사회통제이론의 태도, 차별적 교제이론의 차별적 교제 및 자기통제 변수의 매개에 의해 성관련 경험을 하게 된다. 인습적인 사회와의 연대감의 약화로 규범적인 사회화과정에 결함을 초래하고, 사회화과정의 결여는 특정 태도를 형성한다. 연대감이 약화된 청소년들은 비슷한 경향을 지니는 동료와 쉽게 어울리게 되고, 어린 시절 잘 형성되지 못한 자기통제능력으로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성관련 경험을 하게 된다. 자아개념은 성장과정 중 형성되어 자신을 자신감있게 표현하는 자기주장에 영향을 하게 된다.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성관련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감각추구 성향과 같은 성격특성은 모험심이 많음으로 인해 성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갖게 되고, 비슷한 성향을 지니는 친구와 어울리게 되어 성관련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한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1-1] .



[그림 III-1-1] 개념적 기틀

## 2.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이상의 개념적 기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허쉬(1969)의 애착의 개념을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인습적 기관인 가족요인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의 친밀감, 가족과의 대화, 가족의 감독 등으로 변수화하였다.

허쉬(1969)는 전념(Commitment)을 교육 및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열망과 기대가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Krohn & Massy, 1980: 529-543; Wiatrowski 외, 1981: 525-541), 대신 전념의 지표로 학업성적을 사용하면서 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청소년에게 있어 관례적 행위란 주로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고,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학업성적은 교육에 대한 현재의 상태이다. 따라서 학업과 관련된 성취지향정도는 전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허쉬(1969)는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쓰지 않으면 비행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교활동에 대한 개입은 학생들의 전념과 동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Polk & Halferth, 1966). 허쉬(1969)는 개입을 학교관련 활동 개입 및 여가활동 개입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개입만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념과 개입 및 학업 성취도가 모두 학교와 관련된 요인이므로 학교요인이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학교전념, 개입, 및 성취도 등으로 변수화하였다.

애착은 권위적 존재로부터의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 사회규칙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이러한 신념과 관련하여 인간행위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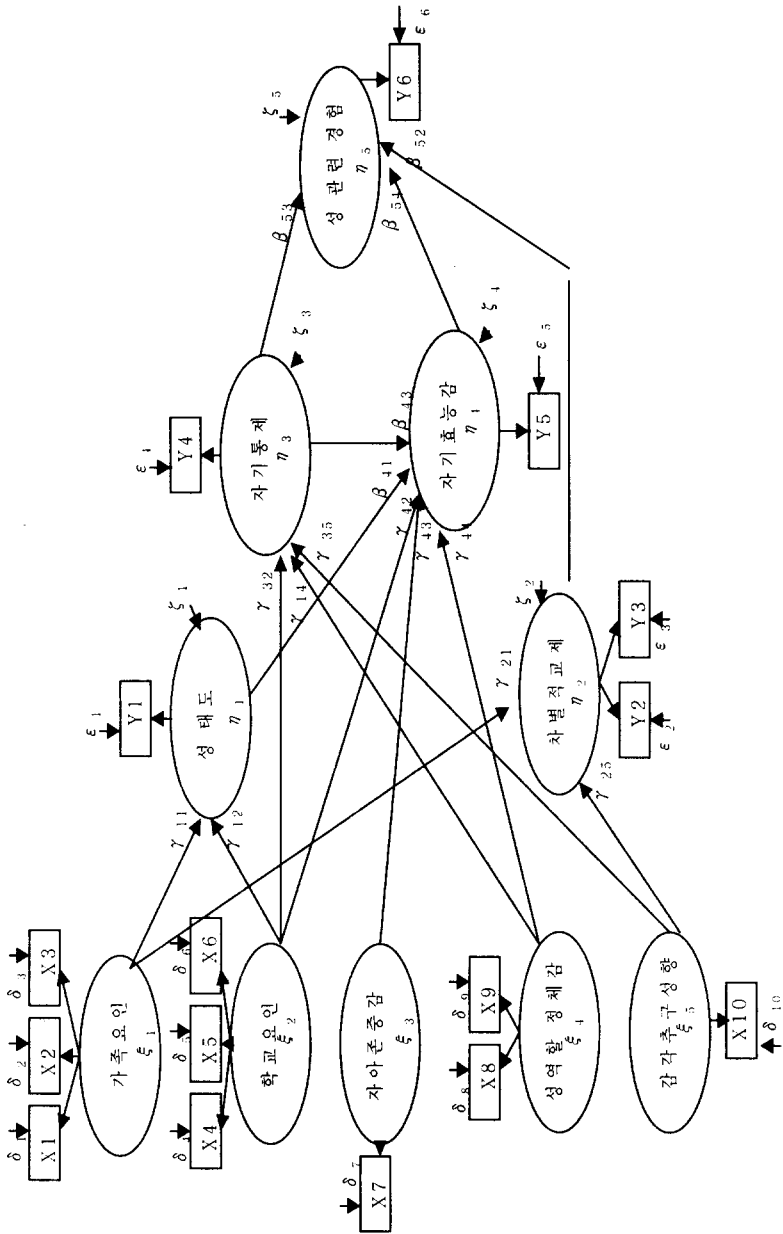
(Hirschi, 1969). 애착이 결여되면 대인적 권위존재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결여되고, 이것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규범적 유형'을 거절하기 쉽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념을 태도로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성에 대한 태도로 변수화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차별적 교제이론에서의 차별적 교제는 그대로 개념화하여 이성교제 및 친구와의 교제로 변수화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기타 문헌고찰을 통해 성관련 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개념, 성격특성, 자기 통제를 개념화하였다.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정체감으로 변수화하여 측정하고자 하며, 성격특성은 감각추구 성향으로 변수화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자기통제는 자기 통제, 자기효능감 등으로 변수화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론 변수는 가족요인( $\xi_1$ ), 학교요인( $\xi_2$ ), 자아존중감( $\xi_3$ ), 성역할 정체감( $\xi_4$ ), 감각추구성향( $\xi_5$ )이며, 내생변수는 성태도( $\eta_1$ ), 차별적 교제( $\eta_2$ ), 자기통제( $\eta_3$ ), 자기효능감( $\eta_4$ ), 성관련 경험( $\eta_5$ )이다. 그리고 측정변수는 가족친밀도( $X_1$ ), 가족대화( $X_2$ ), 가족감독( $X_3$ ), 학교전념( $X_4$ ), 학교개입( $X_5$ ), 성취도( $X_6$ ), 자아존중감( $X_7$ ), 남성성( $X_8$ ), 양성성( $X_9$ ), 탈억제( $X_{10}$ ), 보수성( $Y_1$ ), 이성교제( $Y_2$ ), 친구와의 교제( $Y_3$ ), 자기통제( $Y_4$ ), 자기효능감( $Y_5$ ), 성 관련 경험( $Y_6$ ) 등 16개의 변수이다.

10개의 이론변수들은 16개의 측정변수에 의해 측정이 된다. 가족요인, 학교요인,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체감, 감각추구성향 등이 외생변수이고, 이것이 성 태도, 차별적 교제,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에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상의 이론들에 의해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III-2-1].



[그림 III-2-1] 가설적 모형

### 3. 연구가설

#### 1) 성관련 경험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차별적 교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경험 점수가 높을 것이다 ( $\beta_{52}$ ).

가설2. 자기통제 점수가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 점수가 높을 것이다( $\beta_{53}$ ).

가설3.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 점수가 높을 것이다 ( $\beta_{54}$ ).

## IV.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3. 연구도구
4. 자료수집 방법
5. 자료분석 방법



## IV.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을 예측하기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정하는 공변량 구조모형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모집단은 한국의 4,684개 중·고등학교의 십대 여학생(13 - 19세) 1,988,902명이며, 표적 모집단은 이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2학년 여학생이다. 근접 모집단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중 층화 표출법으로 표출된 633명의 여학생을 표본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서울의 인문계 고교 200개와 실업계 고교 총 70개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총 63,375명중 633명을 층화 표집한다. 층화 표집 방법은 서울시의 11개 교육구청을 동, 서, 남, 북의 4개 지역으로 재편성하여<sup>1)</sup> 4개의 표집 대상에서 인문계와 실업고의 학생수 비율인 3: 1을 적용하여 인문계 3개교와 실업고 1개교를 선정하여 인문계 여학생 총 48,201명 중 482명, 실업계 여학생 15,174명 중 151명을 각각

1) 대상학교는 서울의 11개 교육구청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1) 동부지역(동부 교육청: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교육청: 성동구, 광진구, 중부교육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2) 북부 지역(북부 교육청: 도봉구, 노원구, 성북 교육청: 강북구, 성북구) 3) 서부 지역(서부교육청: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서교육청: 강서구, 양천구, 남부교육청: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4) 남부지역(남부 교육청: 동작구, 관악구, 강남 교육청: 서초, 강남구, 강동 교육청: 송파구, 강동구)에서 각 1개교, 모두 4개교를 표집하였다.

표집하였다. 대상자를 서울지역으로 한정 한 이유는 본 연구가 구조적 모형구축을 위한 적절한 표본수가 200-300명으로 제시되고 있어(이순목, 1990), 이에 근접한 정도의 인원을 전국적인 규모로 표본추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고등학교 2학년에 한정시킨 이유는 가급적 연령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성관련 경험 도구, 가족요인 도구, 학교요인 도구, 자아개념 도구, 성격특성 도구, 성에 대한 태도 도구, 차별적 교제 도구, 자아통제 도구, 자기 효능감 도구이다(부록 참조). 본 연구의 신뢰도는 <표 IV-3-1> 과 같다.

#### 1) 성 관련 경험

성 관련 경험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십대 여학생이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한 손잡기, 어깨동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등 13가지 경험항목에 대해 자가보고식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도구로 사용한다. ‘전혀 없다’ 0점, ‘한 두 번 있다’ 1점, ‘서너 번 있다’ 2점, ‘대 여섯 번 있다’ 3점, ‘아주 많다’ 4점 척도로 측정하고, 항목마다 심각도가 다름에 따라 항목에 따른 가중치를 조사하여 각 항목 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총점으로 판단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 관련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성 관련 경험을 주성분분석으로 인자 분석한 결과 표본 상관 행렬의 고유값(Eigen value)이 적어도 1이상 되어야 한다는 Kaiser의 규칙(김기영·전명식, 1996)에 따라 2개의 요인이 선정되었다. 제 1요인에는 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뽀뽀, 키스가 큰 적재를 나타내었고, 이 요

인의 고유값은 5.10이었다. 제 2요인에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 피임 등이 큰 적재를 나타내었고, 고유값은 2.19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2,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 =.85로 나타났다. 제 1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1이었고, 제 2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 1요인은 친밀감표현 경험으로, 제 2요인은 성교표현 경험으로 명명하여 본 조사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표 IV-3-1> 도구의 신뢰도

| 도구            | 신뢰도(Cronbach $\alpha$ ) |     |
|---------------|-------------------------|-----|
|               | 예비조사                    | 본조사 |
| 성 관련 경험 도구    | .82                     | .85 |
| 전체            | .91                     | .89 |
| 가족 애착         |                         |     |
| 가족 친밀감        | .86                     | .83 |
| 가족 대화         | .93                     | .89 |
| 가족 감독         | .82                     | .76 |
| 학교 전념         | .60                     | .69 |
| 학교 개입         | .80                     | .66 |
| 전체            | .87                     | .91 |
| 성역할 정체감       |                         |     |
| 남성성           | .88                     | .87 |
| 여성성           | .71                     | .75 |
| 중성성           | .77                     | .80 |
| 자아존중감         | .85                     | .87 |
| 전체            | .88                     | .83 |
| 감각추구성향(SSI)   |                         |     |
| 모험심           | .95                     | .91 |
| 충동성           | .76                     | .76 |
| 탈억제           | .66                     | .70 |
| 이성교제          | .94                     | .94 |
| 성경험 친구와의 교제   | .90                     | .83 |
| 성에 대한 태도(SAS) | .90                     | .70 |
| 자기통제          | .81                     | .75 |
| 자기효능감         | .86                     | .84 |

## 2) 가족요인

가족요인은 가족애착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애착은 김준호, 박정선 (1995)의 가족애착도구로 측정한다. 가족 애착도구는 가족과의 친밀도에 5개 문항, 가족과의 대화정도에 대한 4개 문항, , 가족의 감독정도에 대한 6개 문항 등 총 1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 애착 도구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  $\alpha=.89$ 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전체 Cronbach  $\alpha=.91$ 이었고, 가족 친밀도의 Cronbach  $\alpha=.86$ , 가족대화 Cronbach  $\alpha=.93$ , 가족 감독의 Cronbach  $\alpha=.82$ 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전체 Cronbach  $\alpha=.91$ 이었고, 가족 친밀도의 Cronbach  $\alpha=.83$ , 가족대화 Cronbach  $\alpha=.89$ , 가족 감독의 Cronbach  $\alpha=.76$ 로 나타났다.

가족 결손 여부는 부모님들께서 모두 살아 계시며, 함께 살고 있는가로 질문하였다.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모두 안 계신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별거하여 두 분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가정으로 보았다.

모형의 측정변수에는 가족애착도구의 가족친밀도, 가족 대화, 가족감독만을 선정하였고, 가족 결손은 일반적 특성에서 다루었다.

## 3)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학업전념, 학교개입정도, 학업 부적응 및 학업 성취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전념은 허쉬(1969)가 전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손정남(1999)이 번역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학업전념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문항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 1

점, ‘확실히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 3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전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68$ 이었고, 예비조사 결과 학교 전념의 Cronbach  $\alpha=.60$ 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학교 전념의 Cronbach  $\alpha=.69$ 로 나타났다.

학교개입은 허쉬(1969)의 개입도구에 기초해 청소년지도육성회(1988)에서 수정·보완한 학교개입에 대한 도구로 총 4문항을 ‘절대 그렇지 않다’ 1점, ‘확실히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 4점에서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개입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  $\alpha=.80$ 이었고, 예비조사 결과 학교개입의 Cronbach  $\alpha=.80$ 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학교개입의 Cronbach  $\alpha=.66$ 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는 지난 학기 자신의 학급에서의 등수를 퍼센트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는 상위 %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 4) 자아특성

본 연구에서는 성 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말하며, 성역할 정체감은 김영희(1994)의 한국 성역할 정체감 도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로 측정한다. 전체 40문항으로 남성성 15개 문항, 여성성 15개 문항, 중성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남성성의 Cronbach  $\alpha=.86$ , 여성성의 Cronbach  $\alpha=.76$ , 중성성의 Cronbach  $\alpha=.69$ 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성역할 정체감 전체의 Cronbach  $\alpha=.87$ , 남성성의 Cronbach  $\alpha=.88$ , 여성성의 Cronbach  $\alpha=.71$ , 중성성의 Cronbach  $\alpha=.77$ 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성역할 정체감 전체의 Cronbach  $\alpha=.91$ , 남성성의 Cronbach  $\alpha=.87$ , 여

성성의 Cronbach  $\alpha=.75$ , 중성성의 Cronbach  $\alpha=.80$ 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측정변수로는 여성성과 남성성만을 사용하여, 두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을 의미하며, 두 점수가 모두 낮으면 미분화성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1965)의 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한다. 총 10개 문항으로 5개는 긍정 문항, 5개는 부정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을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  $\alpha=.92$ 이었고, 예비조사 결과 Cronbach  $\alpha=.85$ 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87$ 로 나타났다.

## 5) 성격특성

감각추구 성향은 퍼거슨·발렌티(1990, 1991)의 감각추구도구로 측정한다. 감각추구 도구는 모험심, 충동성, 탈억제 등 3개 영역으로 총 17개 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험심에 대한 7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으로 최저 7점에서 최고 4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험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충동성에 대한 6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으로 11번과 13번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최저 6점에서 최고 4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탈억제에 대한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으로 최저 4점에서 최고 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탈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 결과 탈억제의 17번 문항의 신뢰도가 낮아 이를 제외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6$ 이었고, 모험심의 Cronbach  $\alpha=.76$ , 충동성의 Cronbach  $\alpha=.79$ , 탈억제의 Cronbach  $\alpha=.89$ 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전체 Cronbach  $\alpha=.88$ , 모험심의 Cronbach  $\alpha=.95$ , 충동성의 Cronbach  $\alpha=.60$ , 탈억제의 Cronbach  $\alpha=.66$

으로 나타났다. 17번 문항을 제외하고 본 조사 결과 전체 Cronbach  $\alpha$  =.83, 모험심의 Cronbach  $\alpha$  =.91, 충동성의 Cronbach  $\alpha$  =.76, 탈억제의 Cronbach  $\alpha$  = .70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측정변수에서는 탐색적 인자분석 결과 모험심과 충동성이 탈억제와는 다른 특성으로 분류되고, 또한 성역할 정체감의 남성성변수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험심과 충동성을 제외한 탈억제만을 감각추구성향의 측정변수로 선정하였다.

## 6) 성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태도를 말하며, 허드슨 등(1990)의 성태도(Sexual Attitude Scale: SAS) 측정도구를 김영혜(2000)가 수정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 도구는 인간의 성적표현에 대한 자유주의적 내지 보수주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25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강하게 부인한다’ 1점, ‘부인한다’ 2점, ‘동의도 부인도 할 수 없다’ 0점, ‘동의한다’ 3점, ‘강하게 동의한다’ 4점으로 측정하여, 총점이 50점 이하를 낸 경우는 인간의 성표현에 대한 태도가 자유분방한 것으로 생각되며, 50점 이상의 경우는 인간의 성에 대한 태도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와 심각함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  $\alpha$  =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Cronbach  $\alpha$  = .90이었다.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  = .70으로 나타났다.

## 7) 차별적 교제

본 연구에서는 이성 교제와 성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를 의미하며, 이성교제는 이성과의 교제빈도, 강도, 기간, 남자친구의 수 등을 묻는 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최저 5점에서 최고 2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교제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예비 조사 결과 Cronbach  $\alpha = .94$ 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 = .94$ 로 나타났다.

성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는 성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해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근거로 개발한 도구로 사용한다. 성관련 영역별로 경험한 친구의 수를 ‘전혀 없다’ 1점에서 ‘많다’ 5점으로 총 6개 문항으로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 중 성관련 경험친구가 많음을 의미한다. 예비 조사 결과 Cronbach  $\alpha = .90$ 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 8) 자기통제

본 연구에서 자기 통제는 켄달과 윌콕스(1979)의 자기 통제 평정 척도(self - control rating Scale: SCRS)와 험프리(1982: 2060)의 T-SCRS도구를 청소년에 맞도록 수정한 김현숙(199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3, 6, 7, 8, 9, 11, 14번의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총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 결과 Cronbach  $\alpha = .81$ 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 = .75$ 로 나타났다.

## 9) 자기 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쉐레와 마독스(1982: 193-202)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척도로 과제를 성취하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성취 효능감과 사람을 사귀는 자신감인 사회 효능감으로 구성된 도구로 총 13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 결과 Cronbach  $\alpha=.86$ 으로 나타났고, 본 조사 결과 Cronbach  $\alpha=.84$ 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도구 수정과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도구 중 국내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을 본 연구자가 번역한 후 2개의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교육받고, 정신과 병동에 근무한 자와 번역한 것을 다시 영역 한 후 의미와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수정하여 최종적인 도구로 결정하였다. 수정된 문항을 간호학 전공 2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를 5월 24일 ~ 5월 31일까지 1개 고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참여 동의를 받은 120명의 여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총 120개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자료 19개를 제외한 101개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분석과 신뢰도 조사를 하고,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는 도구는 요인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이 요구되는 문항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한 후 최종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선정된 인문고 3개교, 실업고 1개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료수집 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633부였으나 조사된 전체 표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11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사용된 것은 522부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C - SAS Program과 PC - LISREL 8.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특성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ANOVA 및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2)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및 가설 검증은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최대 우도법으로 공분산 구조 모형을 실시하였다.

## 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성 관련 경험의 가중치 결정
3. 대상자의 성 관련 경험
4.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
5.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6.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7. 가설적 모형의 검정
8. 가설적 모형의 수정



## 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포는 <표V-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16.82세였다. 학교의 종류는 74.86%가 인문계였고, 25.14%가 실업계로 나타났다. 이는 표집시 인문계와 실업고의 학생비율인 3:1의 비율로 표집 하였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종교는 없는 경우가 41.57%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3.72%, 천주교 12.26%, 불교 11.49%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중이 51.15%로 가장 많았고, 중상 31.23%, 중하 13.03%, 최상 3.07%, 하 1.53%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6.83%, 대졸이하 26.30% 등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59.04%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18.46%로 나타났다.

친부모의 생존여부는 94.44%가 생존하고 있었고, 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88.68%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이 없는 경우가 88.29%, 결손이 있는 경우가 11.71%로 나타났다. 결손이유로는 이혼한 경우가 51.79%, 사망이 27.59%, 별거중인 경우가 10.34%, 직장이나 학교문제가 8.62%, 기타가 1.72%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한달 용돈 규모는 3-5만원 미만인 35.77%로 가장 많았고, 1-3만원 미만 28.85%, 5-10만원 미만 19.04%, 1만원 미만 9.04%, 10만원 이상 7.31%이었다.

십대 여학생들의 문제 행동 중 음란물의 접촉 경험 여부는 경험에 있는 경우가 62.19%로 나타나 십대 여학생의 반수이상이 음란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상원 외(1997: 9-39)의 연구에서 61.1%가 음란 영화/비디오를 적어도 1번 이상 본 경험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접촉한 음란물의 유형은 컴퓨터나 CD롬을 통해서가 58.5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비디오, 영화 46.42%, 만화 26.48%, 포르노 영상물 22.19%, 성인잡지 6.54%로 나타났다. 이는 박윤석(1999)의 연구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 포르노 사이트의 이용자 20% 이상이 10대라는 결과 및 이상문(1995)의 음란매체가 청소년들의 성적 허용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을 지지해주고 있다. 1997년 이후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포르노가 빠르고 넓게 유포되어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규제와 안전장치 없이 노출되고 있다. 요즈음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성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및 정책적 방안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비판력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음란물 접촉에 대해 절제하는 힘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들의 음주경험은 전혀 마시지 않는 군이 47.59%이었고, 한 달에 한번 이하로 마시는 군이 37.69%, 한 달에 3-4번 10.96%, 일 주에 1-2번 2.69%, 일 주에 3-4번 0.77%,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가 0.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십대 여학생들 중 52.41%가 한 달에 한번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상원 외(1997: 9-39)의 여학생의 음주실태에서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29%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시 여학생의 음주 경험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들의 흡연 경험은 전혀 피우지 않는 경우가 86.97%이었고, 13.03%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정남(2000: 316-329)의 여학생의 흡연 경험 17.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가출경험은 8.81%로 나타나 장순복 외(2000)의 고2 여학생의 가출경험 9.1%와 비교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김상원 외(1997: 9-39)의 여학생들의 가출경험 6.9%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들 중

왕따 경험이 있는 경우가 9.02%로 나타나 장순복 외(2000)의 연구결과 고2 여학생의 11.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V-1-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특성       | 구분        | N(%)       | 평균     |
|----------|-----------|------------|--------|
| 나이       |           |            | 16.82세 |
| 학교의 종류   | 인문계       | 390(74.86) |        |
|          | 실업계       | 131(25.14) |        |
| 종교       | 없다.       | 217(41.57) |        |
|          | 천주교       | 64(12.26)  |        |
|          | 기독교       | 176(33.72) |        |
|          | 불교        | 60(11.49)  |        |
|          | 기타        | 5(0.96)    |        |
| 생활수준     | 최상        | 16(3.07)   |        |
|          | 중상        | 163(31.23) |        |
|          | 중         | 267(51.15) |        |
|          | 중하        | 68(13.03)  |        |
|          | 하         | 8(1.53)    |        |
| 아버지의 학력  | 초등학교 졸업이하 | 18(3.45)   |        |
|          | 중졸이하      | 35(6.72)   |        |
|          | 고졸이하      | 244(46.83) |        |
|          | 대졸이하      | 137(26.30) |        |
|          | 대학원 이상    | 87(16.70)  |        |
| 어머니의 학력  | 초등학교졸업이하  | 20(3.85)   |        |
|          | 중졸이하      | 59(11.35)  |        |
|          | 고졸이하      | 307(59.04) |        |
|          | 대졸이하      | 96(18.46)  |        |
|          | 대학원이상     | 38(7.31)   |        |
| 아버지의 직업  | 전문직       | 109(20.92) |        |
|          | 관리직       | 13(2.50)   |        |
|          | 사무직       | 109(20.92) |        |
|          | 판매/서비스직   | 89(17.08)  |        |
|          | 생산직       | 69(13.24)  |        |
|          | 공무원, 교직   | 50(9.60)   |        |
|          | 기타        | 82(15.74)  |        |
| 친부모 생존여부 | 친부모 생존    | 493(94.44) |        |
|          | 친부와 계모    | 5(0.96)    |        |
|          | 친모와 계부    | 3(0.57)    |        |
|          | 친부만 생존    | 3(0.57)    |        |
|          | 친모만 생존    | 15(2.87)   |        |
|          | 양친 사망     | 3(0.57)    |        |

| 특성         | 구분            | %          | 평균 |
|------------|---------------|------------|----|
| 친부모 동거여부   | 친부모 동거        | 462(88.68) |    |
|            | 친부와 계모        | 7(1.03)    |    |
|            | 친모와 계부        | 3(0.58)    |    |
|            | 친부만 동거        | 17(3.26)   |    |
|            | 친모만 동거        | 23(4.41)   |    |
|            | 다른 친척과 동거     | 7(1.34)    |    |
|            | 다른 사람과 동거     | 1(0.19)    |    |
|            | 혼자 산다         | 1(0.19)    |    |
| 가족결혼 여부    | 없음            | 460(88.29) |    |
|            | 있음            | 61(11.71)  |    |
| 한 달 용돈 규모  | 1만원미만         | 47(9.04)   |    |
|            | 1만원 - 3만원 미만  | 150(28.85) |    |
|            | 3만원 - 5만원 미만  | 186(35.77) |    |
|            | 5만원 - 10만원 미만 | 99(19.04)  |    |
|            | 10만원 이상       | 38(7.31)   |    |
| 음란물 접촉 경험  | 유             | 324(62.19) |    |
|            | 무             | 197(37.81) |    |
| 접촉한 음란물 매체 | 컴퓨터, CD롬      | 188(58.57) |    |
|            | 비디오, 영화       | 149(46.42) |    |
|            | 포르노 영상물       | 71(22.19)  |    |
|            | 만화            | 85(26.48)  |    |
|            | 성인잡지          | 21(6.54)   |    |
| 음주 경험      | 전혀 안 마심       | 248(47.69) |    |
|            | 한 달에 한번 이하    | 196(37.69) |    |
|            | 한 달에 3-4번     | 57(10.96)  |    |
|            | 한 주에 1-2번     | 14(2.69)   |    |
|            | 한 주에 3-4번     | 4(0.77)    |    |
|            | 거의 매일         | 1(0.19)    |    |
| 흡연         | 전혀 안 피움       | 454(86.97) |    |
|            | 한 개피 미만       | 21(4.02)   |    |
|            | 2-4개피         | 25(4.79)   |    |
|            | 반 갑 정도        | 21(4.02)   |    |
|            | 한 갑 정도        | 1(0.19)    |    |
|            | 한 갑 이상        | -          |    |

| 특성      | 구분          | %          | 평균 |
|---------|-------------|------------|----|
| 가출 경험   | 무           | 476(91.19) |    |
|         | 유           | 46(8.81)   |    |
| 약물남용 경험 | 전혀 안 함      | 521(99.81) |    |
|         | 한 달에 한 번 이하 | 1(0.19)    |    |
|         | 한 달에 3-4회   | -          |    |
|         | 한 주에 1-2회   | -          |    |
|         | 한 주에 3-4회   | -          |    |
|         | 거의 매일       | -          |    |
| 왕따 경험   | 무           | 474(90.08) |    |
|         | 유           | 47(9.02)   |    |

## 2. 성 관련 경험의 가중치 결정

본 조사에 앞서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한 행위별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통하여 13개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심각성 수준을 조사하였다. 13개의 성 관련 경험을 십대 여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십대 여학생들이 청소년시기에 이들 각각의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 상 '전혀 나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나쁘다' 5점등으로 평정하였다. 각 각의 성 관련 경험의 심각성 수준은 본 조사 분석시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성 관련 경험별 심각성 수준의 평균치는 다음의 <표 V-2-1> 과 같다.

성 관련 경험 중 가장 심각하게 지각한 것은 돈을 받고 성교하는 것으로 가중치 4.80이었고, 그 다음 임신 4.50, 유산 4.49, 성기 만지기 4.46, 성교 4.44의 순이었다. 가장 가볍게 지각한 것은 손잡기 1.06, 어깨동무 1.10, 포옹 1.20 등의 순이었다.

&lt;표 V-2-1&gt; 성 관련 경험의 심각성 지각평균(가중치)

| 순위 | 성 관련 경험  | Mean(SD)   |
|----|----------|------------|
| 13 | 손잡기      | 1.06(0.46) |
| 12 | 어깨동무     | 1.10(0.60) |
| 11 | 포옹       | 1.20(0.70) |
| 10 | 뽀뽀       | 1.40(0.80) |
| 9  | 키스       | 1.75(1.14) |
| 7  | 가슴 만지기   | 4.07(1.23) |
| 4  | 성기 만지기   | 4.46(0.90) |
| 5  | 성교       | 4.44(1.00) |
| 8  | 피임       | 3.62(1.53) |
| 2  | 임신       | 4.50(0.90) |
| 3  | 유산       | 4.49(0.96) |
| 1  | 돈을 받고 성교 | 4.80(0.50) |
| 6  | 출산       | 4.19(1.30) |

### 3. 대상자의 성 관련 경험

#### 1) 전체 대상자의 성 관련 경험

대상자의 성 관련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13가지의 문항을 설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자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V-3-1>과 같다. 성 관련 경험 대한 인자 분석 결과 2개의 인자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인자는 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뽀뽀, 키스 등으로 '친밀감 표현 경험'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인자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피임, 임신, 유산, 돈을 받고 성교, 출산 등으로 '성교표현 경험'등으로 분류하였다.

&lt;표 V-3-1&gt; 성관련 경험 인자 분석 결과

|             | factor1  | factor2 |
|-------------|----------|---------|
| 손잡기         | 0.88430  | 0.03015 |
| 어깨동무        | 0.89970  | 0.02387 |
| 포옹          | 0.93449  | 0.10272 |
| 뽀뽀          | 0.91672  | 0.14293 |
| 키스          | 0.85739  | 0.20361 |
| 가슴 만지기      | 0.47765  | 0.54141 |
| 성기 만지기      | 0.28470  | 0.72520 |
| 성교          | 0.17473  | 0.84315 |
| 피임          | 0.07667  | 0.84136 |
| 임신          | -0.06919 | 0.75092 |
| 유산          | -0.06919 | 0.75092 |
| 돈을 받고 성교    | 0.08651  | 0.33090 |
| 출산          | 0.00000  | 0.00000 |
| Eigen Value | 5.111    | 2.841   |

대상자의 성관련 경험에 대한 빈도를 13가지 항목에 따라 <표 V-3-2>에 제시하였다.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 중 가장 많은 것은 손잡기로 대상자의 57.47%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 어깨동무 50.19%, 포옹 44.06%, 뽀뽀 37.74%, 키스 30.84%, 가슴 만지기 8.62%, 성기 만지기 2.30%, 성교 2.30%, 피임 0.77%, 임신 0.19%, 유산 0.19%, 돈을 받고 성교 0.1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출산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순복 외(2000)의 고2 여학생의 신체접촉 빈도가 손잡기 63.1%, 어깨동무 54.1%, 뽀뽀 40.2%, 키스 33.7%, 가슴 만지기 12%, 성기 만지기 6%, 성교 6%, 피임 4.3%, 임신 0.5%, 유산 0.4% 등과 비교시 본 연구 결과가 전반적으로 경험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시 인문고의 실업고의 학생비율을 서울시 2학년 여고생의 계열별 비율에 비례하여 표집한 결과 실업고의 비율이 25.14%로 나타났으나 장순복외(2000)의 연구에서는 실업고의 비율이 39%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일반적으로 실업고 여학

생의 성관련 경험이 일반고에 비해 성관련 경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손잡기의 경우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42.53%로 가장 많았고, ‘아주 많다’가 31.61%, ‘한 두 번 있다’가 10.54%로 나타났다. 어깨동무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49.81%로 가장 많았고, ‘아주 많다’가 20.88%로 나타났다. 포옹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55.94%로 가장 많았고, ‘아주 많다’가 15.71%로 나타났다. 뽀뽀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가 62.26%, ‘한 두 번 있다’가 1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키스는 69.16%의 대상자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고, ‘아주 많다’가 10.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슴 만지기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가 91.38%, ‘한 두 번 있다’가 3.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기 만지기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가 96.74%, ‘한 두 번 있다’가 1.15%의 순이었다. 성교는 97.70%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고, 한 두 번 경험한 경우가 0.96%에 불과하였다. 피임은 99.23%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고, ‘아주 많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0.38%)이었다. 임신, 유산, 돈을 받고 성교는 대부분이 경험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여학생만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출산은 연구 대상자 모두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십대 여학생들이 손잡기에서부터 키스까지의 친밀감표현 경험은 총점 0-20점 범위 중 평균 6.07점으로 나타났고, 가슴 만지기의 경험부터의 성교표현 경험은 총점 0-32점 범위중 0.38점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성관련 경험의 총점은 평균 9.109로 나타났다. 성관련 경험에 대한 가중치 적용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내어 여학생들이 손잡기에서 키스까지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인식하므로 많은 수의 대상자가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가슴 만지기에서 출산까지는 십대 여학생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경험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처음으로 성 관련 경험을 한 시기는 손잡기 15.57세, 어

깨동무 15.88세, 포옹 16.07세, 뽀뽀 16.26세, 키스 16.45세, 가슴 만지기 16.63세, 성기 만지기 16.56세, 성교 16.5세, 피임 16.5세, 임신 16세, 유산 17세, 돈을 받고 성교 17세 등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심각한 성관련 경험빈도는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이전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경험도는 감소되나 저연령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조기에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V-3-2> 대상자의 성관련 경험

| 항목               | Mean<br>(SD)     | 전혀<br>없다       | 있다            |              |               |                | 경험<br>연령 |
|------------------|------------------|----------------|---------------|--------------|---------------|----------------|----------|
|                  |                  |                | 한두 번<br>있다    | 서너 번<br>있다   | 대여섯 번<br>있다   | 아주<br>많다       |          |
| 1. 손잡기           | 1.761<br>(1.762) | 222<br>(42.53) | 55<br>(10.54) | 36<br>(6.90) | 44<br>(8.43)  | 165<br>(31.61) | 15.57세   |
| 2. 어깨동무          | 1.398<br>(1.642) | 260<br>(49.81) | 65<br>(12.45) | 35<br>(6.70) | 53<br>(10.15) | 109<br>(20.88) | 15.88세   |
| 3. 포옹            | 1.188<br>(1.557) | 292<br>(55.94) | 58<br>(11.11) | 36<br>(6.90) | 54<br>(10.34) | 82<br>(15.71)  | 16.07세   |
| 4. 뽀뽀            | 0.925<br>(1.407) | 325<br>(62.26) | 64<br>(12.26) | 39<br>(7.47) | 35<br>(6.70)  | 59<br>(11.30)  | 16.26세   |
| 5. 키스            | 0.800<br>(1.375) | 361<br>(69.16) | 44<br>(8.43)  | 31<br>(5.94) | 32<br>(6.13)  | 54<br>(10.34)  | 16.45세   |
| 6. 가슴 만지기        | 0.209<br>(0.777) | 477<br>(91.38) | 17<br>(3.26)  | 6<br>(1.15)  | 8<br>(1.53)   | 14<br>(2.68)   | 16.63세   |
| 7. 성기 만지기        | 0.080<br>(0.493) | 505<br>(96.74) | 6<br>(1.15)   | 2<br>(0.38)  | 4<br>(0.77)   | 5<br>(0.96)    | 16.56세   |
| 8. 성교            | 0.054<br>(0.398) | 510<br>(97.70) | 5<br>(0.96)   | 1<br>(0.19)  | 3<br>(0.57)   | 3<br>(0.57)    | 16.5세    |
| 9. 피임            | 0.025<br>(0.293) | 518<br>(99.23) |               | 1<br>(0.19)  | 1<br>(0.19)   | 2<br>(0.38)    | 16.5세    |
| 10. 임신           | 0.002<br>(0.044) | 521<br>(99.81) | 1<br>(0.19)   | .            | .             | .              | 16세      |
| 11. 유산           | 0.002<br>(0.044) | 521<br>(99.81) | 1<br>(0.19)   | .            | .             | .              | 17세      |
| 12. 돈을 받고<br>성교  | 0.006<br>(0.131) | 521<br>(99.81) | .             | .            | 1<br>(0.19)   | .              | 17세      |
| 13. 출산           |                  | 522<br>(100.0) | .             | .            | .             | .              | .        |
| 친밀감표현<br>경험(1-5) | 6.07<br>(7.06)   |                |               |              |               |                |          |
| 성적표현<br>경험(6-13) | 0.38<br>(1.74)   |                |               |              |               |                |          |
| 전체<br>성경험(1-13)  | 9.11<br>(13.69)  |                |               |              |               |                |          |

## 2) 계열별 성관련 경험

대상자의 학교 계열별 성 관련 경험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V-3-3>.

성관련 경험에 대한 인자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친밀감표현 경험과 성교표현 경험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친밀감표현 경험의 경우 실업계 여학생은 평균 8.443이었으나, 인문계 여학생은 5.256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F=20.74$ ,  $p<.0001$ ). 성교표현 경험의 경우 실업계 여학생은 평균 0.641이었으나, 인문계 여학생은 0.287로 나타나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F=4.09$ ,  $p=.0435$ ). 가중치를 적용한 성 관련 경험은 실업계 여학생이 13.308로 인문계 여학생의 7.665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17.19$ ,  $p<.0001$ ). 이는 실업계 여학생들이 비교적 사회와의 접촉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성과의 교제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실업계 여학생에 대한 성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표 V-3-3> 계열별 성관련 경험

| 학교유형         |      | 인문계    | 실업계    | F(p)     |
|--------------|------|--------|--------|----------|
| 친밀감표현<br>경험  | Mean | 5.256  | 8.443  | 20.74    |
|              | SD   | 6.677  | 7.632  | (<.0001) |
| 성교표현<br>경험   | Mean | 0.287  | 0.641  | 4.09     |
|              | SD   | 1.452  | 2.383  | (0.0435) |
| 성경험<br>(가중치) | Mean | 7.665  | 13.308 | 17.19    |
|              | Sd   | 12.318 | 16.469 | (<.0001) |

### 3) 이성교제별 성 관련 경험

십대 여학생의 이성교제 경험은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1.69%로 이 중 15.71%의 여학생은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표 V-3-4>. 본 연구의 이성교제 경험 빈도는 차은석(1999: 357-375)의 48.1%나 장순복 외(2000)의 5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첫 이성교제 시기는 평균 15.02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관계 교육 및 이성간의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은 15세 이전에 실시하여야 이성교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표 V-3-4>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

N=522

| 특성           | 구분      | N(%)       | Mean<br>(SD)     |
|--------------|---------|------------|------------------|
| 이성교제경험       | 현재 교제중  | 82(15.71)  | 15.02세<br>(1.53) |
|              | 과거에 있었다 | 240(45.98) |                  |
|              | 경험이 없다  | 200(38.31) |                  |
| 첫 이성교제<br>시기 |         |            |                  |

대상자의 이성교제 별 성 관련 경험의 차이는 <표 V-3-5>와 같다.

대상자는 이성교제에 따라 성 관련 경험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벼운 성 관련 경험의 경우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자의 평균은 13.354로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 8.575나 전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평균 0.08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260.81$ ,  $p<.0001$ ).

성교표현 경험은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자의 평균은 1.305로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 0.375나 전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평균 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17.46$ ,  $p<.0001$ ).

가중치를 적용한 성관련 경험은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자의 평균 22.471이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 12.057이나 전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평균 0.09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132.52$ ,  $p<.0001$ ). 이는 이성교제 중인 여학생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여학생에 비해 성교 경험이 높다는 결과(이선경, 2000)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성교제 경험여부에 따라 성 관련 경험의 차이가 있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자친구가 있는냐의 여부가 성관련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3-5> 이성교제별 성 관련 경험

| 이성교제         |      | 현재(A)  | 과거(B)  | 전혀<br>경험없다<br>(C) | F(p)     | 사후<br>비교 |
|--------------|------|--------|--------|-------------------|----------|----------|
| 친밀감표현<br>경험  | Mean | 13.354 | 8.575  | 0.085             | 260.819  | A>B>C    |
|              | SD   | 6.671  | 6.240  | 0.468             | (<.0001) |          |
| 성교표현<br>경험   | Mean | 1.305  | 0.375  | 0                 | 17.46    | A>B>C    |
|              | SD   | 3.365  | 1.523  | 0                 | (<.0001) |          |
| 성경험<br>(가중치) | Mean | 22.471 | 12.057 | 0.093             | 132.52   | A>B>C    |
|              | SD   | 19.090 | 12.104 | 0.520             | (<.0001) |          |

#### 4.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은 <표 V-4-1>과 같다. 성교육의 측면에서 대상자 중 성교육을 받은 경우가 93.4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성교육자가 누구인가의 질문에 교

사가 67.70%로 가장 많았고, 부모 8.90%, 매스컴 8.49%, 사회단체 8.07%, 기타 6.02%, 형제자매 0.41%의 순 이었다.

대상자 중 성 고민이 있는 경우가 18.04%로 청소년 5명 중 1명 정도가 성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받은 성교육 중 주요 내용은 성 건강이 51.13%, 성 행동 영역 38.40%, 인간관계 26.69%의 순 이었다.

성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누구에게서 얻느냐는 질문에 교사에게서 얻는다가 31.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친구 30.06%, 컴퓨터 매체 15.61%의 순 이었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증거이며, 학교 성교육을 위한 매체 개발과 성교육 전문교사의 필요성과 주기적인 연수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를 통해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음으로 동료 친구들의 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여과되지 않고 전달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갖게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운영되기는 하지만 성교육에 대한 CD 자료나 인터넷 콘텐츠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lt;표 V-4-1&gt; 성교육 경험

| 특성         | 구분         | %          |
|------------|------------|------------|
| 성교육 여부     | 유          | 485(93.45) |
|            | 무          | 34(6.55)   |
| 성 교육자      | 부모         | 43(8.90)   |
|            | 형제, 자매     | 2(0.41)    |
|            | 교사         | 327(67.70) |
|            | 매스컴        | 41(8.49)   |
|            | 사회단체       | 39(8.07)   |
|            | 기타         | 31(6.42)   |
| 성 고민 여부    | 유          | 94(18.04)  |
|            | 무          | 427(81.96) |
| 성교육을 받은 내용 | 인간발달영역     | 77(15.84)  |
|            | 인간관계       | 130(26.69) |
|            | 대인관계       | 108(22.18) |
|            | 성행동 영역     | 187(38.40) |
|            | 성 건강       | 249(51.13) |
|            | 사회와 문화     | 106(21.86) |
| 성 지식 취득원   | 부모         | 24(4.62)   |
|            | 교사         | 166(31.98) |
|            | 형제, 자매     | 3(0.58)    |
|            | 친구         | 156(30.06) |
|            | 책, 잡지      | 38(7.32)   |
|            | 컴퓨터매체, 인터넷 | 81(15.61)  |
|            | 기타         | 51(9.83)   |

## 5.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서술적 통계는 다음<표 V-5-1>과 같다.

가족요인 중 가족 친밀도는 5점 만점에 3.792로 비교적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대화는 5점 만점에 3.073으로 가족끼리 보통수준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감독은 5점 만점에 3.539로 부모들이 자녀를 대체로 잘 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 중 학교 전념은 5점 만점에 3.463으로 학업이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학교 개입은 5점 만점에 2.478로 학교 활동에 보통수준이하로 개입하고 있었다. 성취도는 상위 43.074%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아개념 중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835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성 역할 정체감의 여성성은 7점 만점에 4.638로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남성성은 7점 만점에 4.355로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감각추구성향 중 모험심은 7점 만점에 4.524로 보통수준이상으로 나타났고, 충동성은 7점 만점에 3.888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탈억제는 7점 만점에 4.265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100점 만점에 40.810으로 자유주의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교제 중 이성교제는 5점 만점에 2.625로 이성교제의 빈도, 강도가 보통수준이하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교제는 4점 만점에 0.595로 친구 중 성 관련 경험을 한 친구가 1-2명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 중 자기주장은 5점 만점에 3.836으로 가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5점 만점에 3.266으로 보통수준이상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25로 보통수준이상이었다.

&lt;표 V-5-1&gt;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 이론 변수<br>측정 변수 | 평균<br>(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W값<br>(p-value) |
|----------------|----------------|--------|--------|-----------------|
| <b>가족요인</b>    |                |        |        |                 |
| 가족친밀도          | 3.792(0.758)   | -0.507 | -0.189 | 0.967(<.0001)   |
| 가족대화           | 3.073(1.066)   | 0.018  | -0.938 | 0.970(<.0001)   |
| 가족감독           | 3.539(0.736)   | -0.400 | -0.085 | 0.981(<.0001)   |
| <b>학교요인</b>    |                |        |        |                 |
| 학교전념           | 3.463(0.771)   | -0.351 | 0.032  | 0.973(<.0001)   |
| 학교개입           | 2.478(0.765)   | 0.263  | -0.444 | 0.978(<.0001)   |
| 성취도            | 43.074(26.870) | 0.332  | -0.984 | 0.953(<.0001)   |
| <b>자아개념</b>    |                |        |        |                 |
| 자아존중감          | 2.835(0.527)   | -0.275 | -0.473 | 122.920(<.0001) |
| 여성성            | 4.638(0.698)   | -0.230 | 0.259  | 0.992(.008)     |
| 남성성            | 4.355(0.889)   | 0.092  | -0.043 | 0.995(.106)     |
| <b>감각추구성향</b>  |                |        |        |                 |
| 모험심            | 4.524(1.281)   | -0.343 | -0.124 | 0.983(<.0001)   |
| 충동성            | 3.888(1.030)   | 0.072  | -0.124 | 0.995(.068)     |
| 탈억제            | 4.265(1.205)   | -0.152 | -0.200 | 0.991(.004)     |
| <b>성태도</b>     |                |        |        |                 |
| 보수주의           | 40.810(11.678) | 0.332  | 0.682  | 0.991(.002)     |
| <b>차별적 교제</b>  |                |        |        |                 |
| 이성교제           | 2.627(1.377)   | -0.149 | -1.676 | 0.812(<.0001)   |
| 친구와의 교제        | 0.595(0.572)   | 1.241  | 1.226  | 0.869(<.0001)   |
| <b>자기통제</b>    |                |        |        |                 |
| 자기통제           | 3.266(0.431)   | 0.040  | 0.350  | 0.995(0.112)    |
| <b>자기효능감</b>   |                |        |        |                 |
| 자기효능감          | 3.225(0.584)   | 0.141  | 0.018  | 0.996(0.158)    |
| <b>성 관련 경험</b> |                |        |        |                 |
| 성 관련 경험        | 9.109(13.685)  | 2.692  | 10.730 | 0.691(<.0001)   |

## 6.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변수의 상관행렬은 다음<표 V-6-1>과 같다.

본 연구의 최종 변수인 성 관련 경험(가중치 적용)은 이성교제가 많을 수록( $r=.63$ ), 성 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 수록( $r=.55$ ), 탈억제적 일 수록( $r=.33$ ), 성적이 나쁠 수록( $r=.17$ ), 학교개입이 적을 수록( $r=-.17$ ), 학교에 전념하지 않을 수록( $r=-.17$ ), 여성성이 강할 수록( $r=.15$ ), 자기통제가 낮을 수록( $r=-.14$ ), 가족감독이 적을 수록( $r=-.13$ ), 가족친밀감이 적을 수록( $r=-.11$ )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자 분석 결과에 따라 친밀감표현 경험과 성교표현 경험으로 나누었을 때, 친밀감표현 경험은 이성교제가 많을 수록( $r=.78$ ), 성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 수록( $r=.60$ ), 탈억제적 일 수록( $r=.38$ ), 학교에 전념하지 않을 수록( $r=-.22$ ), 학교에 개입하지 않을 수록( $r=-.20$ ), 성적이 낮을 수록( $r=.18$ ), 여성성이 강할 수록( $r=.18$ ), 충동적 일 수록( $r=.17$ ), 가족의 감독이 적을 수록( $r=-.16$ ), 자기통제가 낮을 수록( $r=-.15$ ), 가족과의 대화가 적을 수록( $r=-.15$ )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표현 경험은 성관련 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 수록( $r=.35$ ), 이성교제가 많을 수록( $r=.22$ ), 탈억제가 강할 수록( $r=.15$ )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유의수준에서 자기통제가 낮을 수록( $r=-.09$ )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6-1&gt; 연구변수의 상관행렬

|                | x1       | x2       | x3       | x4       | x5       | x6       | x7       | x8      | x9      | x10      | y1       | y2       | y3       | y4       | y5      | y6      | y61     | y62    |
|----------------|----------|----------|----------|----------|----------|----------|----------|---------|---------|----------|----------|----------|----------|----------|---------|---------|---------|--------|
| y1<br>기초신뢰감    | 1.0000   |          |          |          |          |          |          |         |         |          |          |          |          |          |         |         |         |        |
| x2<br>가족대위     | 0.59606  | 1.0000   |          |          |          |          |          |         |         |          |          |          |          |          |         |         |         |        |
| x3<br>지적감각     | 0.46804  | 0.56875  | 1.0000   |          |          |          |          |         |         |          |          |          |          |          |         |         |         |        |
| x4<br>학교진행     | 0.29645  | 0.35989  | 0.37550  | 1.0000   |          |          |          |         |         |          |          |          |          |          |         |         |         |        |
| x5<br>학교개입     | 0.20215  | 0.26511  | 0.34698  | 0.57140  | 1.0000   |          |          |         |         |          |          |          |          |          |         |         |         |        |
| x6<br>생태도      | -0.23621 | -0.23806 | -0.23539 | -0.52986 | 1.0000   |          |          |         |         |          |          |          |          |          |         |         |         |        |
| x7<br>자이론충격    | 0.46749  | 0.40278  | 0.38638  | 0.40797  | 0.2094   | -0.2807  | 1.0000   |         |         |          |          |          |          |          |         |         |         |        |
| x8<br>보통성      | 0.24628  | 0.25142  | 0.20030  | 0.30582  | 0.27517  | -0.15786 | 0.48658  | 1.0000  |         |          |          |          |          |          |         |         |         |        |
| x9<br>유상성      | 0.16501  | 0.18810  | 0.16146  | 0.16549  | 0.10586  | 0.02310  | 0.20316  | 0.39635 | 1.0000  |          |          |          |          |          |         |         |         |        |
| x10<br>물리적     | -0.01782 | -0.05214 | -0.13629 | -0.16557 | -0.18147 | 0.12631  | 0.01836  | 0.26325 | 0.29877 | 1.0000   |          |          |          |          |         |         |         |        |
| y1<br>도수주의     | 0.53378  | 0.06152  | 0.10162  | 0.13356  | 0.08917  | -0.06402 | 0.03578  | 0.04351 | 0.09249 | -0.08578 | 1.0000   |          |          |          |         |         |         |        |
| y2<br>마성교배     | -0.05781 | -0.11974 | -0.08952 | -0.21368 | -0.18559 | 0.15539  | 0.02728  | 0.10802 | 0.18028 | 0.38205  | -0.02756 | 1.0000   |          |          |         |         |         |        |
| y3<br>친구와의교배   | -0.03241 | -0.09194 | -0.03741 | -0.21213 | -0.14330 | 0.09869  | -0.02985 | 0.15976 | 0.16281 | 0.36902  | 0.05796  | 0.47756  | 1.0000   |          |         |         |         |        |
| y4<br>자기충격     | 0.26418  | 0.29628  | 0.30507  | 0.48724  | 0.45818  | -0.25777 | 0.39190  | 0.30580 | 0.03594 | -0.22946 | 0.07427  | -0.15344 | -0.19134 | 1.0000   |         |         |         |        |
| y5<br>자기충격감    | 0.30414  | 0.33286  | 0.29603  | 0.39682  | 0.34808  | -0.25166 | 0.52667  | 0.67260 | 0.27482 | 0.15459  | -0.00111 | 0.15711  | 0.10972  | 0.45608  | 1.0000  |         |         |        |
| y6<br>충격(전체)   | -0.10856 | -0.09396 | -0.12845 | -0.16511 | -0.16856 | 0.16859  | -0.03904 | 0.08444 | 0.15783 | 0.32882  | -0.01741 | 0.25557  | 0.55447  | -0.14452 | 0.06182 | 1.0000  |         |        |
| y61<br>친밀감표현정체 | -0.04984 | -0.14746 | -0.16123 | -0.22445 | -0.19859 | 0.18312  | -0.04610 | 0.09157 | 0.17789 | 0.38324  | -0.03919 | 0.17800  | 0.56976  | -0.14905 | 0.09806 | 0.86156 | 1.0000  |        |
| y62<br>공포표현정체  | -0.08225 | 0.01702  | -0.04029 | -0.03325 | -0.06949 | 0.08727  | -0.00596 | 0.04372 | 0.08492 | 0.15210  | 0.01139  | 0.22289  | 0.34720  | -0.08775 | 0.0926  | 0.79670 | 0.39180 | 1.0000 |
|                | 0.16004  | 0.6981   | 0.3583   | 0.4464   | 0.1128   | 0.0828   | 0.8520   | 0.3187  | 0.0528  | 0.0005   | 0.7651   | <.0001   | <.0001   | 0.9451   | 0.947   | <.0001  | <.0001  |        |

## 7. 가설적 모형의 검증

### 1) 가설적 모형의 검증과정

본 연구의 모수 추정방법은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외생변수는 가족요인( $\xi_1$ ), 학교요인( $\xi_2$ ), 자아존중감( $\xi_3$ ), 성역할 정체감( $\xi_4$ ), 감각추구성향( $\xi_5$ )들이며, 내생변수는 성태도( $\eta_1$ ), 차별적 교체( $\eta_2$ ), 자기통제( $\eta_3$ ), 자기 효능감( $\eta_4$ ), 성관련 경험( $\eta_5$ ) 등이다. 가족요인은 3개, 학교요인은 3개, 자아존중감은 1개, 성역할 정체감은 2개, 감각추구성향 1개 등의 측정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내생변수들은 성태도는 1개, 차별적 교체는 2개, 자기통제는 1개, 자기효능감은 1개, 성관련 경험은 1개로 측정되어 총 16개( $\lambda_x$  : 10개,  $\lambda_y$ : 6개)의 측정변수가 포함되었다.

### 2) 측정변수의 적절성 검증

이론변수에 대한 측정변수가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생 변수의 모수 매트릭스 (Lambda X)의 추정치 <표 V-7-1>, 내생 변수의 모수 매트릭스 (Lambda Y)의 추정치 < 표 V-7-2>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의 추정치는 요인계수(Factor loading)를 의미하고 이 계수의 유의도는 t값의 절대값이 1.96이상인 경우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Lambda X, Lambda Y의 요인계수에 대한 t값이 모두 1.96이상이어서 각각의 이론변수에 대하여 좋은 측정변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lt;표 V-7-1&gt; 외생변수의 모수(Lambda X) 추정치

| 변수            | 가족요인<br>요인 계수<br>(t 값) | 학교요인<br>요인 계수<br>(t 값) | 자아존중감<br>요인 계수<br>(t 값) | 성역할정체감<br>요인 계수<br>(t 값) | 감각추구성향<br>요인 계수<br>(t 값) |
|---------------|------------------------|------------------------|-------------------------|--------------------------|--------------------------|
| <b>가족요인</b>   |                        |                        |                         |                          |                          |
| 가족친밀도         | 0.734*                 |                        |                         |                          |                          |
| 가족대화          | 0.796*                 |                        |                         |                          |                          |
| 가족감독          | 0.704*                 |                        |                         |                          |                          |
| <b>학교요인</b>   |                        |                        |                         |                          |                          |
| 학업전념          |                        | 0.863*                 |                         |                          |                          |
| 학교개입          |                        | 0.670*                 |                         |                          |                          |
| 성취도           |                        | -0.570*                |                         |                          |                          |
| 자아존중감         |                        |                        | 1.000*                  |                          |                          |
| <b>성역할정체감</b> |                        |                        |                         |                          |                          |
| 남성성           |                        |                        |                         | 0.872*                   |                          |
| 여성성           |                        |                        |                         | 0.445*                   |                          |
| <b>감각추구성향</b> |                        |                        |                         |                          |                          |
| 탈억제           |                        |                        |                         |                          | 1.000*                   |

\* P &lt; .001

&lt;표 V-7-2&gt; 내생변수의 모수(Lambda Y)추정치

| 변수      | 성태도<br>요인계수 | 차별적교제<br>요인계수 | 자기통제<br>요인계수 | 자기효능감<br>요인계수 | 성관련경험<br>요인계수 |
|---------|-------------|---------------|--------------|---------------|---------------|
| 성태도     | 1.000*      |               |              |               |               |
| 이성교제    |             | 0.757*        |              |               |               |
| 친구와의 교제 |             | 0.671*        |              |               |               |
| 자기통제    |             |               | 1.000*       |               |               |
| 자기효능감   |             |               |              | 1.000*        |               |
| 성관련 경험  |             |               |              |               | 1.000*        |

\*  $P < .001$ 

또한 이론변수들이 측정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량을 살펴보기 위해 외생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와 내생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다중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표 V-7-3>.

하나의 이론변수의 변량이 측정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다중 상관계수(SMC)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값이 높으면 이론 변수의 좋은 측정 변수임을 나타낸다(이순목, 1990).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0.198)을 제외하고는 다중상관계수가 0.325 ~ 1.000으로 나타나 좋은 측정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lt;표 V-7-3&gt;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다중상관계수

| 변 수         |         | 다중상관계수 (SMC) |
|-------------|---------|--------------|
| <b>외생변수</b> |         |              |
| 가족요인        | 가족친밀도   | 0.539        |
|             | 가족대화    | 0.634        |
|             | 가족감독    | 0.496        |
| 학교요인        | 학업전념    | 0.746        |
|             | 학교개입    | 0.449        |
|             | 성취도     | 0.325        |
|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1.000        |
| 성역할 정체감     | 남성성     | 0.761        |
|             | 여성성     | 0.198        |
| 감각추구성향      | 탈억제     | 1.000        |
| <b>내생변수</b> |         |              |
| 성태도         | 보수주의    | 1.000        |
|             | 이성교제    | 0.574        |
| 차별적 교제      | 친구와의 교제 | 0.450        |
|             | 자기통제    | 1.000        |
|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   | 1.000        |
| 성 관련 경험     | 성 관련 경험 | 1.000        |

### 3) 가설적 모형의 인정가능성

모형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정보의 수와 미지수의 수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수에서 미지수의 수를 뺀 자유도가 0이거나 0보다 커야 한다. 정보의 수는 이론변수의 변량의 수와 공변량의

수로서  $k$ 개의 이론변수가 있으면 공식은  $k+kC_2 = k+(k-1)/2=k(k+1)/2$ 이다. 또한 미지수 수는 이론 모델에서 자유 특징수로 표시된 원소의 수이다(이순목, 1990).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측정변수가 16개 이므로 정보의 수는  $16(16+1)/2=136$ 개가 되며 측정모형의 16개 특징수 매트릭스(Gamma Beta, PHI, PSI)에서 미지수 수는 51개이다. 따라서 자유도가 85이므로 가설적 모형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여 가설적 모형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검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부합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반적 부합지수로  $\chi^2$ -통계량,  $\chi^2$ -통계량/자유도(df), 적합도 지수(GFI), 조정부합치(AGFI), 원소간 평균 자승잔차(RMR), 표준 부합치(NFI), 비표준 부합치(NNFI), 표준화잔차, Stem - leaf plot, Critical number(C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합지수는 <표 V-7-4>과 같다.  $\chi^2$ -통계량은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이것은 전체 표본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GFI, AGFI, NFI, NNFI 모두 0.9이상이고, RMR도 0.5로 좋은 편이나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Stem - leaf plot은 [그림 V-7-1]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값이 0을 중심으로 대체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Q plot은 직선에 가깝게 보이고 있어 모형과 자료가 비교적 잘 부합됨을 나타내고 있다.

&lt;표 V-7-4&gt; 가설적 모형의 부합지수

| 부합지수  | $\chi^2$<br>(p-value) | $\chi^2/df$ | GFI   | AGFI  | RMR   | NFI   | NNFI  | CN      |
|-------|-----------------------|-------------|-------|-------|-------|-------|-------|---------|
| 가설적모형 | 226.426<br>(0.0)      | 2.663       | 0.948 | 0.918 | 0.050 | 0.949 | 0.952 | 253.008 |

가장 작은 표준화 잔차(Smallest Standardized Residual) = -5.444

표준화 잔차 중위수(Median Standardized Residual) = 0.000

가장 큰 표준화 잔차(Largest Standardized Residual) = 3.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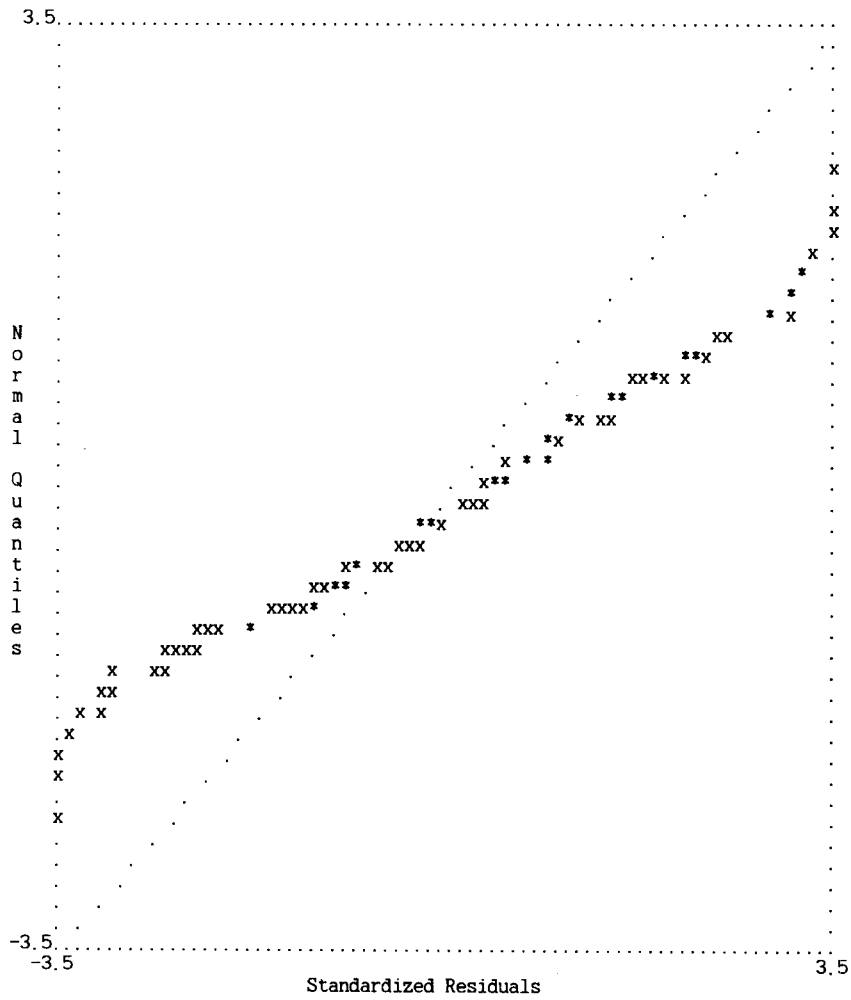
#### Stemleaf Plot

```

- 5|4
- 4|
- 4|3
- 3|7
- 3|431100
- 2|6655
- 2|32211
- 1|8855
- 1|432221000
- 0|99986555
- 0|444333332222100000000000000000
  0|222333333344
  0|5557778999
  1|0000001123444
  1|5555557799
  2|01122234
  2|55699
  3|122223
  3|78
  4|0

```

[그림 V-7-1] 가설적 모형의 Stem-leaf Plot



[그림 V-7-2] 가설적 모형의 Q-plot

### 5)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치

가설적 모형에서는 모수(Beta, Gamma)의 추정치와 t값, 각 내생 변수의 다중 상관계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와 잔여분 변수의 변량 (PSI)은 다음과 같다<표 V-7-5>.

<표 V-7-5>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t값, 다중상관계수(SMC) 및 잔여분 변수의 변량(PSI)

| 내생변수<br>예측변수   | 모수 추정치<br>(표준오차) | t값        | 다중상관계수<br>(SMC) | PSI   |
|----------------|------------------|-----------|-----------------|-------|
| <b>성 관련 경험</b> |                  |           | 0.684           | 0.316 |
| 차별적 교제         | 0.834(0.056)     | 14.898*** |                 |       |
| 자기통제           | 0.057(0.037)     | 1.556     |                 |       |
| 자기효능감          | -0.071(0.036)    | -1.972*   |                 |       |
| <b>성태도</b>     |                  |           | 0.021           | 0.979 |
| 가족요인           | 0.011(0.062)     | 0.183     |                 |       |
| 학교요인           | 0.138(0.062)     | 2.236*    |                 |       |
| <b>차별적 교제</b>  |                  |           | 0.234           | 0.766 |
| 가족요인           | -0.115(0.050)    | -2.292*   |                 |       |
| 감각추구성향         | 0.460(0.050)     | 9.167***  |                 |       |
| <b>자기통제</b>    |                  |           | 0.384           | 0.616 |
| 학교요인           | 0.466(0.053)     | 8.362***  |                 |       |
| 성역할정체감         | 0.230(0.055)     | 4.150***  |                 |       |
| 감각추구성향         | -0.203(0.045)    | -4.495*** |                 |       |
| <b>자기효능감</b>   |                  |           | 0.653           | 0.347 |
| 학교요인           | 0.064(0.047)     | 1.366     |                 |       |
| 자아존중감          | 0.176(0.045)     | 3.943***  |                 |       |
| 성역할정체감         | 0.593(0.051)     | 11.584*** |                 |       |
| 성태도            | -0.057(0.029)    | -2.005*   |                 |       |
| 자기통제           | 0.152(0.038)     | 3.968***  |                 |       |

\*p<.05 \*\*p<.01 \*\*\*p<.001

각 특정수 값의 통계적 기준은  $t$ 값의 절대치가 1.96( $P < .05$ )보다 큰 것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준 변수는 차별적 교제(0.834,  $t=14.898$ )와 자기효능감(-0.071,  $t=-1.972$ )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교제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관련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차별적 교제와 자기효능감이며, 이들 변수가 성관련 경험을 68.4%설명한다. 이는 성 경험 친구의 여부가 성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한성현 외, 2000: 19 - 39)연구와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경우에 성교 경험이 높다는 연구(이양재 외, 1998; 이선경, 2000)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성관련 경험과 직접(Chung · Elias, 1996: 771-784) · 간접적으로(Aas 외 1995: 293- 299) 관련된다는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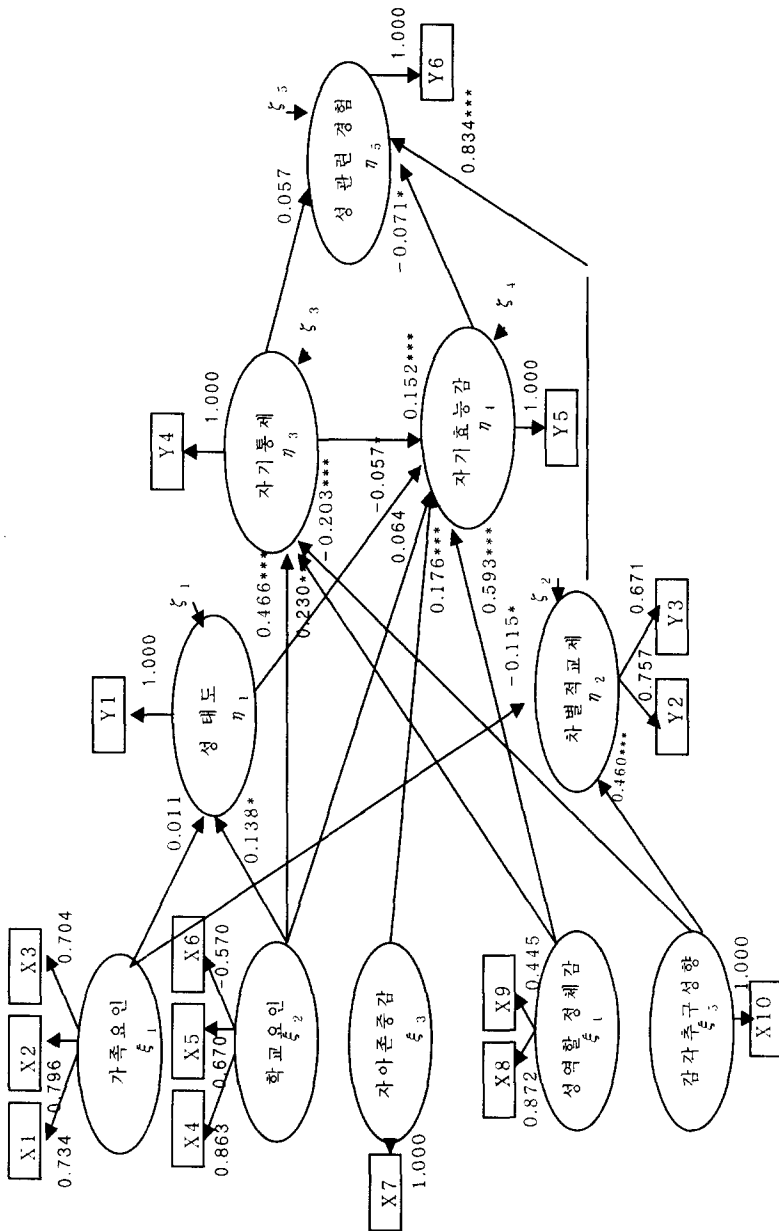
성태도에 영향을 준 변수는 학교요인(0.138,  $t=2.236$ )으로 학교에 전념하고, 개입을 많이 하며, 성적이 좋을수록 보수주의적인 성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은 성태도를 2.1%설명한다.

차별적 교제에 영향을 준 변수는 감각추구성향(0.460,  $t=9.167$ )과 가족요인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이 강할수록 이성교제를 많이 하고, 성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애착이 적을수록 차별적 교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과 가족요인이 차별적 교제를 23.4% 설명한다.

자기통제에 영향을 준 변수는 학교요인(0.466,  $t=8.362$ ), 감각추구성향(-0.203,  $t=-4.495$ )과 성역할 정체감(0.230,  $t=4.150$ )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를 잘하고, 감각추구성향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를 잘하며, 성역할 정체감이 높아 양성성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 감각추구성향, 성역할 정체감이 자기통제를 38.4%설명한다. 이는 양성적 유형이 자기주장적이고, 적응도가 높다는 것(최순남, 1999)과 같은 맥락을 나타낸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변수는 성역할 정체감(0.593,  $t=11.584$ ), 자기통제(0.152,  $t=3.968$ ), 자아존중감(0.176,  $t=3.943$ ) 및 성태도(-0.057,  $t=-2.005$ )로, 성역할 정체감이 높아 양성성 경향을 나타낼수록, 자기통제를 잘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자유주의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및 성태도는 자기효능감을 65.3%설명한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성역할중 양성성인 여고생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다는 결과(홍선옥·표내숙, 1994: 223-236)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도해(Path Diagram)은 다음과 같다 [그림 V-7-3] .



[그림 V-7-3] 가설적 모형의 경로도해

## 6)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V-7-6>.

가설1. 차별적 교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경험 점수가 높을 것이다( $\beta_{52}$ ).

이 가설의 직접효과(0.834,  $t=14.898$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2. 자기통제 점수가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 점수가 높을 것이다( $\beta_{53}$ ).

이 가설의 직접효과(0.057,  $t=1.556$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3.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 점수가 높을 것이다( $\beta_{54}$ ).

이 가설의 직접효과(-0.071,  $t=-1.97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lt;표 V-7-6&gt;가설적 모형의 각 예측변수의 효과계수

| 내생변수<br>예측변수   | 직접효과      | 간접효과<br>(t값)     | 총효과(t값)           |
|----------------|-----------|------------------|-------------------|
| <b>성 관련 경험</b> |           |                  |                   |
| 가족요인           |           | -0.096(-2.292)*  | -0.096(-2.292)*   |
| 학교요인           |           | 0.017( 1.085)    | 0.017( 1.085)     |
| 자아존중감          |           | -0.013(-1.763)   | -0.013(-1.763)    |
| 성역할 정체감        |           | -0.032( 1.526)   | 0.032( 1.526)     |
| 감각추구성향         |           | 0.374( 9.283)*** | 0.374( 9.283)***  |
| 성태도            |           | 0.004( 1.406)    | 0.004( 1.406)     |
| 차별적 교제         | 0.834***  | -                | 0.834(14.898)***  |
| 자기통제           | 0.057     | -0.011(-1.168)   | 0.046( 1.333)     |
| 자기효능감          | -0.071*   | -                | -0.071(-1.972)*   |
| <b>성태도</b>     |           |                  |                   |
| 가족요인           | 0.011     | -                | 0.011( 0.183)     |
| 학교요인           | 0.138*    | -                | 0.138( 2.236)*    |
| <b>차별적 교제</b>  |           |                  |                   |
| 가족요인           | -0.115*   | -                | -0.115(-2.292)*   |
| 감각추구성향         | 0.460***  | -                | 0.460( 9.167)***  |
| <b>자기통제</b>    |           |                  |                   |
| 학교요인           | 0.466***  | 0.000(-0.033)    | 0.466( 8.362)***  |
| 성역할정체감         | 0.230***  | -                | 0.230( 4.150)***  |
| 감각추구성향         | -0.203*** | 0.000( 0.030)    | -0.203(-4.495)*** |
| <b>자기효능감</b>   |           |                  |                   |
| 가족요인           |           | -0.001(-0.183)   | -0.001(-0.183)    |
| 학교요인           | 0.064     | 0.060( 2.932)**  | 0.124( 2.977)**   |
| 자아존중감          | 0.176***  | -                | 0.176( 3.943)***  |
| 성역할 정체감        | 0.593***  | 0.035( 3.260)**  | 0.628(12.071)**   |
| 감각추구성향         | -         | -0.031(-3.148)** | -0.031(-3.148)**  |
| 성태도            | -0.057*   |                  | -0.057(-2.005)*   |
| 자기통제           | 0.152***  | -                | 0.152( 3.968)***  |

\*p&lt;.05, \*\*p&lt;.01, \*\*\*p&lt;.001

## 8. 가설적 모형의 수정

### 1) 모형의 수정과정

모형의 수정은 가설화된 모형을 자료에 적용시킨 결과 및 이론적 고려에 의거하여 적당함과 근사함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 간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정과 부합도 평가, 근사함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이론 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 특징수를 추가하기,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 특징수를 고정하기 및 이론 변수의 추가 및 제거를 포함하여 수정하기 등이 있다(이순목, 1990).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이 비교적 자료에 잘 부합되나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 경로의 고정과 추가과정을 거쳤다. 우선 외생 변수와 내생변수간의 관계인 Gamma 행렬에서의  $t$ 값이 1.96보다 작아서 고정지수가 유의하지 않은 가족요인에서 성태도로 가는 경로( $\gamma_{11}$ )를 0으로 고정시켰다.

수정지수가 10이상이 되는 경로 중 이론적 설명이 부합되는 차별적 교제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beta_{42}$ )를 추가하였다.

### 2) 측정변수의 적절성 검증

수정모형의 측정변수가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생 관찰변수의 특징수 매트릭스(Lambda X)의 추정치, 내생관찰변수의 특징수 매트릭스(Lambda Y)의 추정치는 <표 V-8-1>과 같다.

여기서 Lambda X, lambda Y의 요인계수 대한  $t$ 값이 모두 1.96이상이어서 각각의 이론변수에 대하여 좋은 측정 변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론변수들이 측정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량을 살펴보기 위해 외생 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와 내생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다중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표 V-8-3>. 수정모형의 측정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다중상관계수(SMC)로 설명 될 수 있는데, 수정모형에서 여성성(0.190)을 제외하고는 모두 0.325~1.000으로 나타나 좋은 측정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V-8-1> 외생변수의 모수(Lambda X) 추정치

| 변수            | 가족요인<br>요인계수<br>(t 값) | 학교요인<br>요인계수<br>(t 값) | 자아존중감<br>요인계수<br>(t 값) | 성역할정체감<br>요인계수<br>(t 값) | 감각추구성향<br>요인계수<br>(t 값) |
|---------------|-----------------------|-----------------------|------------------------|-------------------------|-------------------------|
| <b>가족요인</b>   |                       |                       |                        |                         |                         |
| 가족친밀도         | 0.734*                |                       |                        |                         |                         |
| 가족대화          | 0.796*                |                       |                        |                         |                         |
| 가족감독          | 0.704*                |                       |                        |                         |                         |
| <b>학교요인</b>   |                       |                       |                        |                         |                         |
| 학업전념          |                       | 0.858*                |                        |                         |                         |
| 학교개입          |                       | 0.672*                |                        |                         |                         |
| 성취도           |                       | -0.570*               |                        |                         |                         |
| 자아존중감         |                       |                       | 1.000*                 |                         |                         |
| <b>성역할정체감</b> |                       |                       |                        |                         |                         |
| 남성성           |                       |                       |                        | 0.908*                  |                         |
| 여성성           |                       |                       |                        | 0.436*                  |                         |
| <b>감각추구성향</b> |                       |                       |                        |                         |                         |
| 탈억제           |                       |                       |                        |                         | 1.000*                  |

\* P < .001

&lt;표 V-8-2&gt; 내생변수의 모수(Lambda Y) 추정치

| 변수      | 성태도<br>요인계수 | 차별적교제<br>요인계수 | 자기통제<br>요인계수 | 자기효능감<br>요인계수 | 성관련경험<br>요인계수 |
|---------|-------------|---------------|--------------|---------------|---------------|
| 성태도     | 1.000*      |               |              |               |               |
| 이성교제    |             | 0.762*        |              |               |               |
| 친구와의 교제 |             | 0.670*        |              |               |               |
| 자기통제    |             |               | 1.000*       |               |               |
| 자기효능감   |             |               |              | 1.000*        |               |
| 성관련 경험  |             |               |              |               | 1.000*        |

\* P &lt; .001

&lt;표 V-8-3&gt; 수정모형의 외생변수, 내생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다중상관계수 (SMC)

| 변수          | 다중상관계수 (SMC) |
|-------------|--------------|
| <b>외생변수</b> |              |
| 가족요인        |              |
| 가족친밀도       | 0.539        |
| 가족대화        | 0.634        |
| 가족감독        | 0.496        |
| 학교요인        |              |
| 학업전념        | 0.737        |
| 학교개입        | 0.452        |
| 성취도         | 0.325        |
| 자아존중감       | 1.000        |
| 성역할 정체감     |              |
| 남성성         | 0.825        |
| 여성성         | 0.190        |
| 감각추구성향      | 1.000        |
| <b>내생변수</b> |              |
| 성태도         |              |
| 보수주의        | 1.000        |
| 차별적 교제      |              |
| 이성교제        | 0.581        |
| 친구와의 교제     | 0.449        |
| 자기통제        | 1.000        |
| 자기효능감       | 1.000        |
| 성 관련 경험     | 1.000        |

### 3)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정

공변량 구조분석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간명한 모델을 찾는 것이나 부합도를 유지하면서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해 볼 때 가설적 모형에서도 모든 부합지수가 좋았으나 수정모형의 적합도나 간명도가 더욱 증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정모형의 부합도는 <표 V-8-4>와 같이 모든 지수가 가설적 모형보다 높아졌다. 특히 RMR도 .05이하로 감소되어 잔차가 줄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정모형의 표준화 잔차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중위수가 0의 값을 나타내고 0을 중심으로 정규분포하고 있다<그림 V-8-1>. <그림 V-8-2>과 같이 Q-Plot에서도 기울기가 거의 1에 가까워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됨을 나타내었다.

<표 V-8-4> 수정모형의 부합지수의 비교

| 부합지수  | $\chi^2$<br>(p-value) | $\chi^2/df$ | GFI   | AGFI  | RMR   | NFI   | NNFI  | CN      |
|-------|-----------------------|-------------|-------|-------|-------|-------|-------|---------|
| 가설적모형 | 226.426<br>(0.0)      | 2.663       | 0.948 | 0.918 | 0.050 | 0.949 | 0.952 | 253.008 |
| 수정모형  | 226.007<br>(0.0)      | 2.659       | 0.959 | 0.923 | 0.047 | 0.953 | 0.957 | 273.571 |

## Summary Statistics for Standardized Residuals

가장 작은 표준화 잔차 = -4.401  
 표준화 잔차 중위수 = 0.000  
 가장 큰 표준화 잔차 = 4.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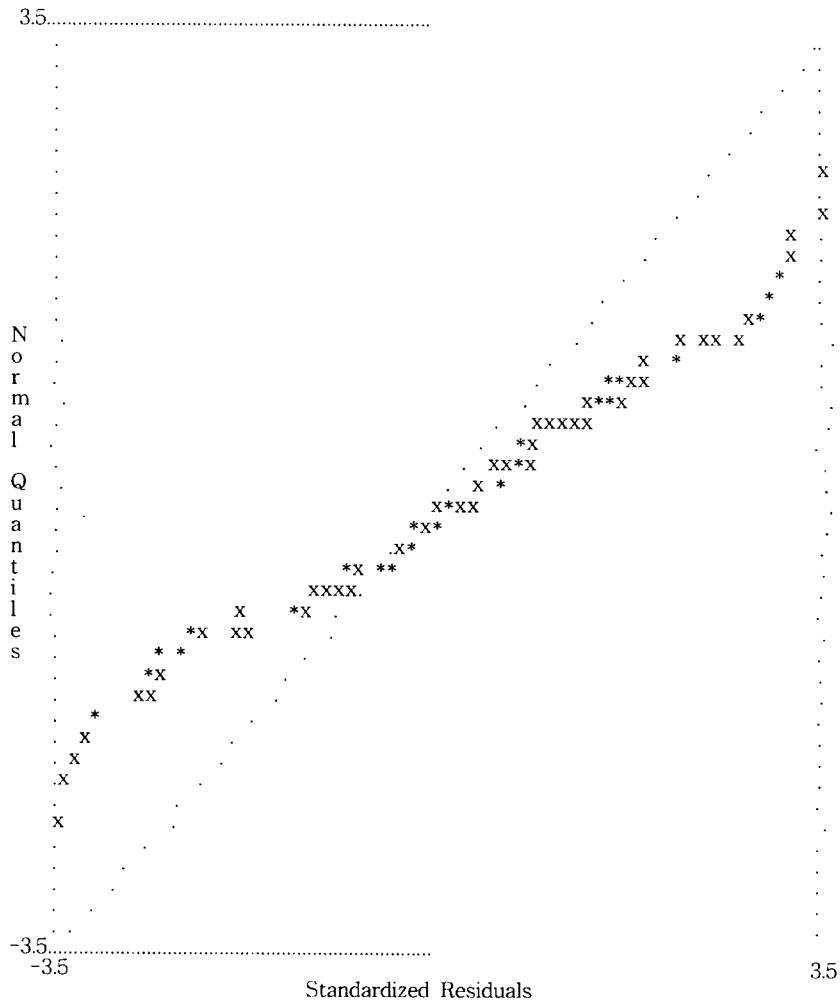
## Stemleaf Plot

```

- 4 | 4
- 3 |
- 3 | 43211
- 2 | 7666555
- 2 | 43222
- 1 | 987
- 1 | 33222100
- 0 | 9998875555
- 0 | 443332222211110000000000000000
  0 | 11112233344
  0 | 566677778888999
  1 | 00012223344
  1 | 556667779999
  2 | 1224
  2 | 5689
  3 | 0001122
  3 | 5
  4 | 3

```

[그림 V-8-1] 수정모형의 Stem - leaf plot



[그림 V-8-2] 수정모형의 Q plot

#### 4) 수정모형의 모수의 추정치

수정 모형에서는 모수(Beta, Gamma)의 추정치와 t값, 각 내생변수의 다중 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와 잔여분 변수의

변량 (PSI)은 다음과 같다<표 V-8-5>.

각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이론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 관련 경험은 차별적 교제가 많을수록(0.851,  $t=14.681$ ), 자기통제를 잘 할수록(0.084,  $t=2.171$ ),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0.126,  $t=-3.127$ )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별적 교제로 나타났다. 차별적 교제, 자기통제,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68.2%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학교요인 점수가 높을수록(0.145,  $t=3.036$ )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2.1%로 나타났다.

차별적 교제는 가족요인 점수가 낮을수록(-0.103,  $t=-2.070$ ),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0.464,  $t=9.309$ )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과 감각추구성향이 차별적 교제를 설명하는 정도는 2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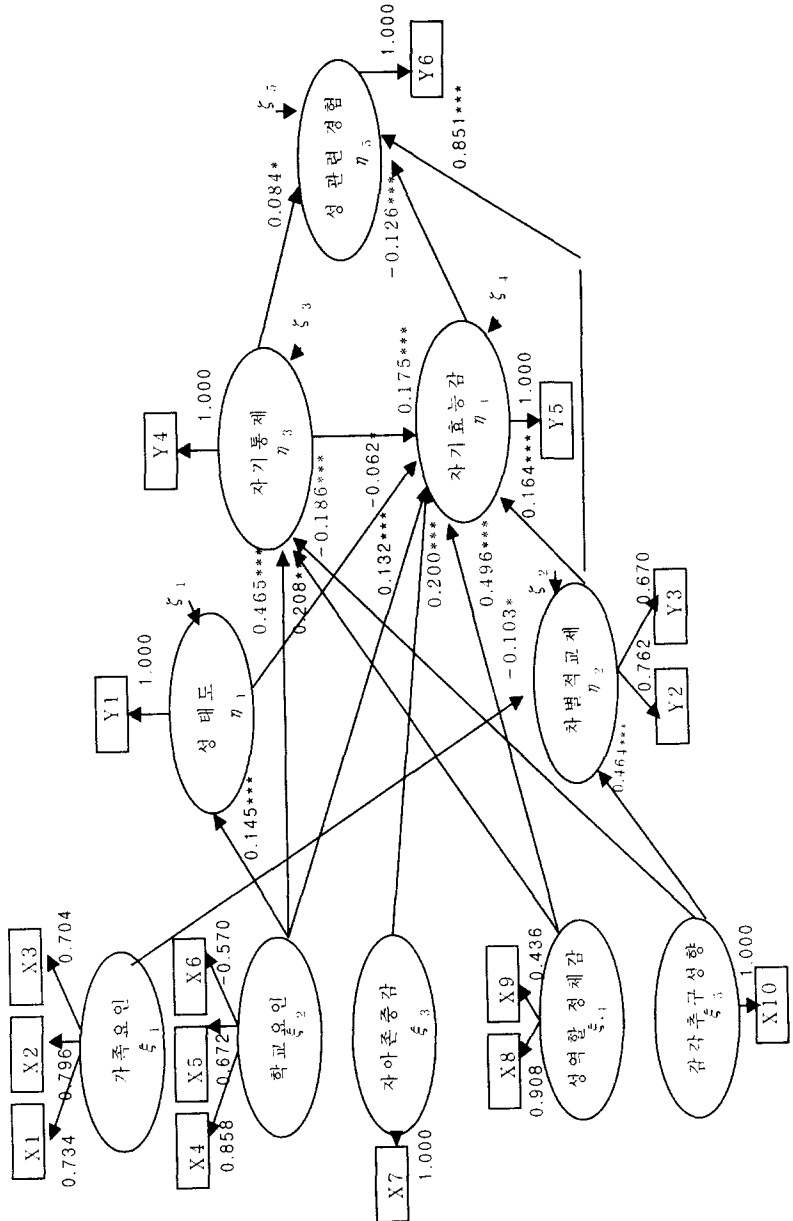
자기통제는 학교요인이 높을수록(0.465,  $t=8.904$ ), 성역할 정체감이 높을수록 즉, 양성성일수록(0.208,  $t=3.970$ ), 감각추구성향이 적을수록(-0.186,  $t=4.232$ ) 자기통제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 성역할 정체감, 감각추구성향이 자기통제를 설명하는 정도는 38.3%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학교요인이 높을수록(0.132,  $t=2.869$ ),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0.200,  $t=4.669$ ), 성역할 정체감이 높을수록(0.496,  $t=9.644$ ) 즉, 양성성일수록, 성태도가 자유주의일수록(-0.062,  $t=-2.202$ ), 차별적 교제가 많을수록(0.164,  $t=4.578$ ), 자기통제를 잘 할수록(0.175,  $t=4.652$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자기효능감을 6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경로도해(Path diagram)은 다음과 같다 [그림 V-8-3] .

<표 V-8-5> 수정 모형의 모수(Beta, Gamma)의 추정치와 t값, 다중 상관계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와 잔여분 변수의 변량 (PSI)

| 내생변수<br>예측변수   | 모수 추정치<br>(표준오차) | t값        | 다중상관계수<br>(SMC) | PSI   |
|----------------|------------------|-----------|-----------------|-------|
| <b>성 관련 경험</b> |                  |           | 0.682           | 0.318 |
| 차별적 교제         | 0.851(0.058)     | 14.681*** |                 |       |
| 자기통제           | 0.084(0.038)     | 2.171*    |                 |       |
| 자기효능감          | -0.126(0.040)    | -3.127**  |                 |       |
| <b>성태도</b>     |                  |           | 0.021           | 0.979 |
| 학교요인           | 0.145(0.048)     | 3.036**   |                 |       |
| <b>차별적 교제</b>  |                  |           |                 |       |
| 가족요인           | -0.103(0.050)    | -2.070*   | 0.233           | 0.767 |
| 감각추구성향         | 0.464(0.050)     | 9.309***  |                 |       |
| <b>자기통제</b>    |                  |           | 0.383           | 0.617 |
| 학교요인           | 0.465(0.052)     | 8.904***  |                 |       |
| 성역할정체감         | 0.208(0.052)     | 3.970***  |                 |       |
| 감각추구성향         | -0.186(0.044)    | -4.232*** |                 |       |
| <b>자기효능감</b>   |                  |           | 0.647           | 0.353 |
| 학교요인           | 0.132(0.046)     | 2.869**   |                 |       |
| 자아존중감          | 0.200(0.043)     | 4.669***  |                 |       |
| 성역할 정체감        | 0.496(0.051)     | 9.644***  |                 |       |
| 성태도            | -0.062(0.028)    | -2.202*   |                 |       |
| 차별적 교제         | 0.164(0.036)     | 4.578***  |                 |       |
| 자기통제           | 0.175(0.038)     | 4.652***  |                 |       |



[그림 V-8-3] 수정모형의 경로도해

## 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V-8-6>.

&lt;표 V-8-6&gt; 수정모형의 각 예측 변수의 효과계수(Effect coefficient)

| 내생변수<br>예측변수   | 직접효과      | 간접효과<br>(t값)     | 총효과(t값)           |
|----------------|-----------|------------------|-------------------|
| <b>성 관련 경험</b> |           |                  |                   |
| 가족요인           | -         | -0.086(-2.075)*  | -0.086(-2.075)*   |
| 학교요인           | -         | 0.013( 0.803)    | 0.013( 0.803)     |
| 자아존중감          | -         | -0.025(-2.551)*  | -0.025(-2.551)*   |
| 성역할 정체감        | -         | -0.050(-2.616)** | -0.050(-2.616)**  |
| 감각추구성향         | -         | 0.373( 9.306)*** | 0.373( 9.306)***  |
| 성태도            | -         | 0.008( 1.805)    | 0.008( 1.805)     |
| 차별적 교제         | 0.851***  | -0.021(-2.268)*  | 0.830(14.972)***  |
| 자기통제           | 0.084*    | -0.022(-2.522)*  | 0.061( 1.745)     |
| 자기효능감          | -0.126**  | -                | -0.126(-3.127)**  |
| <b>성태도</b>     |           |                  |                   |
| 학교요인           | 0.145**   | -                | 0.145( 3.036)**   |
| <b>차별적 교제</b>  |           |                  |                   |
| 가족요인           | -0.103*   | -                | -0.103(-2.070)*   |
| 감각추구성향         | 0.464***  | -                | 0.464( 9.309)***  |
| <b>자기통제</b>    |           |                  |                   |
| 학교요인           | 0.465***  | -                | 0.465( 8.904)***  |
| 성역할정체감         | 0.208***  | -                | 0.208( 3.970)***  |
| 감각추구성향         | -0.186*** | -                | -0.186(-4.232)*** |
| <b>자기효능감</b>   |           |                  |                   |
| 가족요인           | -         | -0.017(-1.932)   | -0.017(-1.932)    |
| 학교요인           | 0.132**   | 0.072( 3.486)*** | 0.205( 4.878)***  |
| 자아존중감          | 0.200***  | -                | 0.200( 4.669)***  |
| 성역할 정체감        | 0.496***  | 0.036( 3.262)**  | 0.533(10.098)***  |
| 감각추구성향         | -         | 0.044( 2.149)*   | 0.044( 2.149)*    |
| 성태도            | -0.062*   | -                | -0.062(-2.202)*   |
| 차별적 교제         | 0.164***  | -                | 0.164( 4.578)***  |
| 자기통제           | 0.175***  | -                | 0.175( 4.652)***  |

수정모형에서 성관련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차별적 교제(0.851,  $t=14.681$ ), 자기효능감(-0.126,  $t=-3.127$ ) 및 자기 통제(0.084,  $t=3.127$ )였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감각추구성향,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차별적 교제, 가족요인 등이었다. 총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차별적 교제(0.830,  $t=14.972$ )로 나타나 친구중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경우와 이성교제의 빈도, 강도가 강한 경우에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감각추구성향(0.373,  $t=9.306$ )으로 탈억제적인 요인이 강할수록 성 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자기효능감(-0.126,  $t=-3.127$ )이 낮을수록, 성역할 정체감(-0.050,  $t=-2.616$ )이 낮아 미분화형일수록, 자아존중감(-0.025,  $t=-2.551$ )이 낮을수록, 가족애착(-0.086,  $t=-2.075$ )이 낮을 수록의 순으로 성 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요인(0.145,  $t=3.036$ )으로, 학교에 전념하고, 개입을 많이 하며, 성적이 좋을수록 성태도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교제는 감각추구성향(0.464,  $t=9.309$ )이 강할수록, 가족요인(-0.103,  $t=-2.070$ )점수가 낮아 가족애착이 적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학교요인(0.465,  $t=8.904$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0.186,  $t=-4.232$ )이 적을수록, 성역할 정체감(0.208,  $t=3.970$ )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성역할 정체감(0.496,  $t=9.644$ )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0.200,  $t=4.669$ )이 높을수록, 자기통제(0.175,  $t=4.652$ )를 잘 할수록, 차별적 교제(0.164,  $t=4.578$ )가 많을수록, 학교요인 점수(0.132,  $t=2.869$ )가 높을수록, 성태도(-0.062,  $t=-2.202$ )가 자유주의일 수록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효과는 학교요인(0.072,  $t=3.486$ ), 성역할 정체감(0.036,  $t=3.262$ ), 감

각추구성향(0.044,  $t=2.149$ )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총 효과에서 가장 큰 것은 성역할 정체감(0.533,  $t=10.098$ )으로, 성역할 정체감이 높아 양성성을 나타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학교요인(0.205,  $t=4.878$ ), 자아존중감(0.200,  $t=4.669$ ), 자기통제(0.175,  $t=4.652$ ), 차별적 교제(0.164,  $t=4.578$ ), 성태도(-0.062,  $t=-2.202$ ), 감각추구성향(0.044,  $t=2.149$ )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정모델의 15개 경로 모두가 유의하였고, 가족요인,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체감, 감각추구성향 등은 모두 간접적인 효과만을 나타내었고, 차별적교제는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나타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효과만을 나타내었다.



## VI. 논의 및 정책방향과 방안

1.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효과
2. 성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3. 여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 VI. 논의 및 정책방향과 방안

### 1.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효과

본 연구 결과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차별적 교제로 나타났다. 즉, 이성친구와의 교제가 오래되고, 친밀하고, 자주 만나며, 친구 중 성관련 경험자가 많을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중 성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성경험의 친구여부가 가장 크다는 기존의 결과를(한성현 외, 2000) 지지하며, 이성교제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친구라는 결과(장순복 외, 2000)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녀 칠세 부동석과 같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남녀에 대한 가치관들은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강요되거나 수용될 수 없다. 청소년 시기는 발달 단계상 자연스럽게 이성에 관심을 갖는 단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성과의 원만한 교제를 통해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십대 여학생들의 이성교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다음으로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이 감각추구성향이였다. 감각추구성향은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으나, 간접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 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감각추구성향이 성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고(Ferguson 외, 1991), 위험한 성행위나 성교경험 등과 관련이 있다(Arnett, 1991: 1305-1313; Gills 외, 1992:37-40)는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각추구성향은 간접적인 효과만 나타내므로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선천적인 요인들과 성관련 경험을 중재하는 변수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로 성관련 경험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 번째로 성관련 경험에 끼치는 총 효과가 큰 것은 자기효능감으

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교를 거절하거나 일찍 성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들(Siomean 외, 2002: 55-63; Felton · Bartoces, 2002: 59-67)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관련 경험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되리라 생각된다.

성관련 경험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은 차별적 교제, 자기통제,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 차별적 교제이론의 변수와 심리적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들이 성관련 경험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변수들 중 가족요인은 가족애착, 감독, 대화 등이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비행이나 성활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김준호 · 김은경, 1995; Brooks-Gunn 외, 1989: 249-257; Small, 1994)을 지지하고 있다. 학교요인은 성관련 경험에 간접적으로나 총 효과 측면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요인이 성관련 경험과 단순한 상관관계에서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구조모형에서는 직 · 간접적인 효과의 영향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이정은, 1998; 이선경, 2000)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간접적인 효과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관련 경험의 예방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적용되어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 정체감은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비행이 성역할에서 기인된다는 주장(김준호 · 김은경, 1995)이나 양성성의 여성들이 비행가담율이 가장 낮다는 결과(Loy 외,

1981: 275)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성교육이 양성성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의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태도는 성관련경험에 간접적으로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영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성접촉수준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차은석, 1999)를 지지하고 있지만, 기타 연구에서 성태도와 성경험에 관련이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정은, 1998; 조아미, 2000; Nancy, 1992)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와 성태도 도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 및 기타 변수들을 통합하여 성관련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가족요인, 학교요인, 성태도와 같은 사회통제이론변수들과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체감,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변수들은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통제이론의 애착과 같은 변수들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다른 요인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주장(이태원, 1992; 손정남, 1999; Johnson, 1979; Massey and Krohn, 1986)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습적 기관의 영향이 청소년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사회화시키지는 않지만 인습적 기관과의 연대감 약화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기능을 약화시켜 사회규범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부족하게 된다.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변수는 차별적 교제이론의 차별적 교제 변수와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였다. 이들 변수들은 성관련 경험을 68.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으로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을 68%를 설명했다는 연구결과(손정남, 1999)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통합된 비행이론이 성관련 경험에도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성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을 예측모형 구축 결과를 토대로 십대 여학생의 성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1) 학교기반 프로그램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야 하는가는 이제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십대 여학생들의 성패러다임이 성은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의식에서 내가 책임지고 즐기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순결만을 강요하며 형식적인 예절교육의 하나로 실시되는 성교육은 성의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다(윤명선, 1999).

우리나라에서 학교 성교육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사용지도서가 개발된 것은 1983년이며, 그 후 교사를 위한 성교육 지도자료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학생들을 지도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윤명선, 1999).

교육계에서는 성교육의 질적 효율성 고양을 위한 성 교육관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제반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나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교사용 성교육 지침서와 학부모 일기 자료 등이 제작되어 배포되었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학교에서만 1년에 1-2회 실시되었다(한국 교육개발원, 1993). 그러나 1996년 학교 성교육이 의무 교육화되고,

1997년 3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초의 우리나라의 성교과서라 할 수 있는 중학생을 위한 “성과 행복”을 발간하였고, 1998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성교과서인 “성과 행복”을 발간하였다(동아일보, 1998).

이 교재가 과거의 성교육에서 벗어나 피임법까지 소개하는 등 진보적이지만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이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남녀 중고생 천 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 여부의 조사결과 전체학생의 79.9%가 교육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이유로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교사를 통해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성교육내용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성교육 요구도가 반영되지 않고 구체성이 떨어져 형식적인데 그치기 때문이다.

최근에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정부에서는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시간 성교육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청소년 성교육 및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확산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성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각 교과별로 혹은 과외 활동을 통해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과거의 입시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겠지만 새롭게 실시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의 의무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자율에 의해 성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성적 발달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발달 시기에 적절한 성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의 평균적인 시기가 15~16세인 것으로 볼 때, 성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은 적어도

15세 이전에 교육해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의 육성과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성건강을 증진하고, 성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1) 성교육 전문가의 확보

21세기는 과거의 어느 시대와도 다른 시대이다.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전문가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초기 성교육은 단일교과와 전문교사에 의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생물, 교련, 체육, 가정, 가사 등 여러 관련 교과에 성교육의 내용을 분산시켜 배치하였으며,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주도하는 성교육의 효과는 그 내용이 단편적이며,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며, 주로 지식적인 측면만을 다루는 등 다분히 분산 학습적인 성격을 띠어 통합된 가치 개념의 성교육지도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단순한 성지식만으로 성관련 행위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식중심의 성교육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성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청소년들의 성요구도를 파악하고, 학교의 실정이나 대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 (2) 교육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

교육내용은 우선적으로 대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실제 성에 대해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십대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떻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등의 이성교제 방법, 자신의 친구가 성적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여학생의 경우 남자아이들이 신체부위에 대해 이상한 관심을 갖고 왜 자꾸 신체접촉을 하려 하며, 야한 비디오를 왜 그렇게 보려하는지 등의 남성의 성에 관하여, 자위행위 등이 무엇인지, 언제 성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지, 왜 사람들은 에이즈와 같은 큰 위험부담이 있는 성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성의 목적, 정상적인 성과 성도착 등의 구분에 관한 성적장애, 평균 생리연령, 왜 몽정을 하는지와 같은 사춘기 생리적 변화, 가슴의 변화와 같은 신체변화, 피임방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Family education network, 1998).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궁금증도 변화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이 요구도에 맞고 청소년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성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에게 명령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강의는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성교육자들 (Family education network, 1998)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성교육은 성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폭넓은 토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단일한 성과 양성을 함께 구성한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각각 시행한다. 양성을 함께 구성한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교육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여 라포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실제 상황을 재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태에 놓인 침대들을 참여자나 또래 지도자로 포함시킨다.

넷째, 성별로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시한다.

다섯째, 가능한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성에 관한 건전한 의식과

책임감있는 태도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십대들이 성관계를 최대한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역할극, 소집단토론, 의사결정 등의 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 과정에 비중을 두는 방법과 교육참여자 스스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발견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이나 역할 학습 그리고 특정 문제에 관계되는 아이디어를 참여자 스스로 짜내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방식이 적용하도록 한다.

일곱째, 거절연습, 의사소통 및 협상기술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가진 자신의 가치태도나 신념에 대해 짚어보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여덟째,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대상자들의 성지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전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아홉째, 대상자들의 독해 능력을 고려하여 읽을 자료를 준비한다.

열번째, 십대 성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결과를 실감있게 알려주고, 성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각자의 몸이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열한번째, 십대의 성의식과 행동에는 부정적인 성경험이나 또래 압력, 그리고 매스컴 등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해 형성되는 왜곡된 관념이나 정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열두번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면 성관계 없이도 애정을 표현하고 지속할 수 있으며, 관계에는 책임이 다르게 됨을 인식시킨다.

### (3) 양질의 콘텐츠 개발

최근의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인터넷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 성교육 및 상담도 인터넷을 통해 점차 이루어

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접근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양방향 매체이므로 청소년들의 요구 및 문제를 즉시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빠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교육차원의 성교육과 지역사회내의 선도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1) 사회교육 차원의 성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교육차원의 성교육이 학교 성교육보다 먼저 실시되었다. 대한가족계획 협회의 청소년 성상담과 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에서 청소년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990년대부터 시민단체의 자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성문제 전담의 부설기관이 개설되어 교육프로그램이 한층 활성화되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92년 청소년 성교육 상담 전문가 양성훈련에 착수하였고 1994년 교육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학교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교원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또한 성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성교육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YMCA 청소년 상담실,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등에서 성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윤명선, 1999).

이러한 지역사회 내의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프로그램은

평등하고 올바른 인간관계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리적인 지식과 함께 남녀평등의 전제아래 바른 인간관계 맺기로 가치관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프로그램에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학생들과 근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들이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의 유관기관들을 통해 전국적이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법과 연령별, 주제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 (2) 보건소 등에 청소년 성 상담센터를 설치

지역사회 내의 성교육 및 상담을 위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연계망을 이용하여 무료 성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구성원에 대한 파악이 가장 잘 되어있고,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건소는 대상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관이고 필요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하여 성 건강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국적인 청소년상담 핫라인을 통합 운영한다. 전화 상담 핫라인의 운영은 어느 청소년이든지 쉽게 번호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도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저렴한 예산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1391)나 가정폭력(1366)과 같은 핫라인이 단일체제로 운영됨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핫라인을 단일체제로 운영하여 즉각적인 개입과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3) 산업체 및 사회단체의 청소년 성교육 상담소 운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교청소년이었지만, 그 외 근로 청소년들에게도 성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산업체 및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며, 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및 노동부 등은 교육부와 성교육 교재나 시청각 보조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또한 성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와 청소년 상담 및 연구에 기초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며,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행동을 통제·통제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가족생활 프로그램 내 사범교사(Master teacher in Family life Program)’(엄명용, 1998 재인용)라는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데 이것은 거리폭력, 약물남용, 위험한 성행위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빈곤지역 청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지도자를 지역 안에서 찾아내 그들을 사범교사(Master teacher)로 삼아 청소년 선도의 주체로 활동한 예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도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 인사를 찾아내 훈련시킨 후 유해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3) 부모나 가족기반 프로그램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에 가족요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자녀를 사회화시키고 가치와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성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통제와 참여는 중요한 예방기전으로 간주되며 청소년의 성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나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성교육자로 부모가 개입되지 않는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궁극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청소년 성교육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8.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지식을 부모로부터 얻는 경우는 매우 저조하여 6항목 중 5번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에 관한 지식을 부모나 전문적 기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거나 음란 비디오, 포르노 잡지, 또는 잘못된 성지식을 알고 있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배운다면 잘못된 성가치관과 성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스스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이 높으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청소년기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에 있어서 부모의 획일적인 가치관만을 강요하지 말고 청소년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폐쇄성에 대해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청소년만을 나무라거나 자기방식대로의 가치관을 강요한다면 청소년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청소년 자녀와 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부모나 가족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솔직하게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때 청소년들이 부모나 가족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나 가족이 청소년의 심리, 성욕구,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나 가족에 대한 성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부모나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은 부모나 가족과 청소년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문제를 가정 안에서 다루므로써 성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4) 동료 주도형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도 성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얻는 취득원이 친구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특성상 이성세대의 의견보다는 동료의 의견을 따르고, 동조하려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주제가 성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담을 갖거나, 개방적인 자세를 갖지 못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동료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우선 서로에 대해 개방적일 수 있고, 세대간의 차이 등을 느끼지 않으므로 요구도를 쉽게 노출시켜 그 효과가 증진 될 수 있다.

동료 주도형 프로그램은 친구들간의 갈등을 또래를 개입하여 중재하도록 하는 방법, 또래끼리 공동의 과제를 성취해보게 하는 방법, 또래 중 전문가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또래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도와주려는 접근법이 확산되어가고 있다(MacWhirter 외, 1998: 140-142). 따라서 지도는 전문가가 운영하지만, 동료 전문가를 개발시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5) 환경적 조성

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풍토를 개선하고, 학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핵가족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므로 발생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사회단체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1) 대중매체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화와 심의 환경 조성

본 연구 결과에서도 성지식 취득원의 대부분이 친구나 컴퓨터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료 친구들이 주 정보원인 경우 이들 친구들도 대부분 대중 매체나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대중매체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화와 심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성동규, 1998).

첫째, 음란물이라고 표현되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1차 책임자인 매체의 정보제공자들은 스스로 정화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매체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TV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신문사들이 발행하는 스포츠 신문 등에서조차 성의 상품화를 통해 시청률을 높이고 신문의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 누가 보아도 음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유포시키고 있다. 이들 대표적 언론기관들이 최우선적으로 언론사 내부에 심의기구를 만들거나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여 음란물의 유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과 일관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음란성 개념은 매체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란성’의 법적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간행물 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연윤리 위원회,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등의 심의도 일관성이 없었다. 차제에 음란물의 범위를

각 매체별로 구체화하고 청소년의 보호차원에서 일관된 법 집행을 펼쳐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이 필요하다. 매체의 홍수 속에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법적·제도적 차원에만 의존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교육적 방법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찾으려는 시민단체의 감시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시민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공하는 PC통신이나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2) 유해환경의 정화

학교 주변의 만화방과 비디오방 노래방, 단란주점, 요정, 카페, 디스코텍 등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철저히 정비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 합동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유해 환경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sup>2)</sup>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은 첫째,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활동에서 행정적 개입과 시민 자율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정부의 행정적 개입만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을 근절시킬 수 없다. 유해환경을 적발하고 정화·퇴출시키는 철저한 규제적 행정과 대국민 홍보와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조장적 정책이 요청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2) 이 부분의 내용은 오치선 외(2000)의 연구의 결론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은 청소년 보호라는 국가·사회적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자원봉사활동 및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도하며, 건전한 환경을 개발하고 조성하여 자율적·창조적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지역사회에 있다.

넷째, 유관기관 및 감시단체들간의 통합적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한다.

### (3) 관련 법령 보완

또한 청소년보호법 등 2001년 7월 1일부터 보다 강화되었지만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는 행정조치는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위반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여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 6) 청소년 성관련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 정책기구의 설치

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현 정부조직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및 교육부 등으로 따로 추진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이 단편적이고, 일관성 및 지속성이 없으며, 중복적인 사업운영으로 예산의 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

이상의 제언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 정책기구를 운영하고, 재정적인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각 부처의 정책 개발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총괄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집행하므로 사업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 3. 여학생의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성적행위는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문화가 존재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이유 중 상대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상대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등의 이유와 같은 성적 자율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자율이 함께 따르는 성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을 옮기는 결정의 순간에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 어떠한 행동이 나에게 편안감을 주는지, 선택의 결과에 잇따르는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성관련 경험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차별적 교제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별적 교제를 매개하는 변수가 자기통제나 자기효능감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매개변수들이 여학생의 성적 의사결정이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율성을 스스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성적 자율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개발되거나 실시된 이론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자기주장 훈련

자기 주장(Self - Assertiveness)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견해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개념이다(Galassi, 1977).

아들러(Adler · Towne, 1982)는 자기주장 행동이란 학습된 행동임을 강조하며 이는 일종의 기술이므로 진실성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자기 주장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비효과적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의사전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자기주장을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은 폭넓은 의사소통과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익숙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만족한다.

정신이나 성격이 건강하여도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개인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기주장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자기주장 행동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Alberti · Emmons, 1978).

십대 여학생들은 유교문화권의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억압되어 자기주장을 못하였고(홍경자, 1996: 22-23). 개방된 자유분방한 동료 영향 속에서는 자기 주장이 자신의 감정위주로 해석되고 있으며(장순복 외, 2000), 가족 내 아버지 역할 부재로 인하여 이성친구나 남성의 대체대상이 아버지와의 상호교류의 부족으로 남성과 타협이나 토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못하여 일정한 유형이 없이 남성 중심적이거나 감정 중심적 의사결정 문화가 혼재된 분위기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선경, 2000).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치 않는 성관련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요구된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절하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이시백 외, 2002).

목표 : 가. 분명하게 ‘안돼’ 혹은 ‘싫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나. 효과적인 거절법의 특징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다. 성관계를 거절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준비: 가. 역할극 하는 법 및 기술 개요 검토

나. 또래 지도자 혹은 역할극 시범자를 선정해서 미리 연습  
다. 거절기술 특성 용지

라. 비효과적인 거절과 효과적인 거절 역할극 대본

마. 역할극 명찰

도입: 목표를 설명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방법을 배울 것을 알려준다. 성공적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이며, 자신이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때때로 안된다고 말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도 있는데 싫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의 진짜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 비참해지는 느낌, 피해의식 등에 사로잡히게 된다. 안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상대가 어떻게 할 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지 말해본다.

#### 활동

##### 가. 거절하기

-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충하면서 효과적인 거절의

특징을 설명한다.

- 가장 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고하게 ‘안돼’라고 말하는 것이며, 때에 따라 자신의 현재 느낌과 처한 상황 그리고 행동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나. 어려운 거절에 응답하기

- 친구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한 두 가지 구절들을 말해보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말해보도록 한다.
- 각각의 언술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거절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성과 관련된 어려운 거절의 예들에 대해 응답해보도록 한다.

다. 시범 역할극

- 칠판에 효과적인 거절의 특징들을 기록한다.
- 연기자의 말뿐 아니라 어조나 행동 등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 미리 연습한 지원자들로 하여금 비효과적인 거절 역할극을 시범해 보이도록 한다.
- 관찰자들로 하여금 역할극에서 사용된 기술과 빠진 기술의 예를 지적하도록 한다.
- 효과적인 거절 역할극 시범을 보이고, 앞의 것과 차이점을 언급한다.
- 역할극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비슷한지 이야기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한다.

라. 소그룹 역할극

- 수정된 역할극 대본으로 구성된 전원이 역할극을 해본다.
- 정해진 대본 말하는 역할/대응역할/관찰자

마. 전체 경험 토론

- 연습하면서 떠오르는 느낌

- 상대가 정말로 거절한다고 느꼈는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느꼈는가?
- 실제 상황이란 비슷했는가 아닌가? 실제 상황이라면 어떠했겠는가?
-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 역할극의 결과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 2)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Bandura(1986)은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정보근원에 의해 증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근원은 성취적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을 들고 있다(Bandura, 1977: 191-215).

자기효능감 접근방법의 치료적 중재의 중요한 목적은 자기통제력의 회복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이명하, 1999).

개인적 경험과 숙달에 바탕을 두는 성취경험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참여 모델 기법은 대상자들이 직접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해 보는 것으로 실제 수행에 자신감을 넣어주는 방법이다. 그 외에 수행 탈감법, 수행노출, 지시적 수행방법 등이 있다.

언어적 설득은 바람직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선택, 행동변화에 대한 타인의 기대되는 반응, 스스로의 삶에 대한 반응, 어떠한 목표에 두고 있는 지나친 집착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치료자들은 결과기대와 결과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요법과 인지-행동적 접근에서 그들의 역기능적 신념, 태도, 기대에 대하여 토론하고 또한 스스로 그러한 신념의 비합리성과 자기파괴적 요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리적 경험 전략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대리적, 심상적 방법을 사용한다. 비디오와 같은 자료를 보고 자신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심상적 경험은 실존적 인물에 의한 모델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적이지 못할 때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자기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위험과 걱정 등에 대한 조작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자기효능감은 감정이 격앙되어 있거나 우울할 때 보다는 침착할 때 이 잘 일어난다. 따라서 생리·정서적 상태 전략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적 혼란과 근심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최면, 바이오 피드백, 긴장 완화, 명상, 약물치료 등을 병용하는 것이다(김남성, 1985).

이러한 자기효능감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리라 기대된다.

### 3) 의식향상 집단 훈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성을 비하하는 왜곡된 성 의식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성 이중규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성관계 거부나 피임실천 등과 같이 여성들의 자기주장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여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여성주의 상담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여성심리학자들은 전통적인 상담방법이 여성을 평가 절하하고,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비난하면서 여성의 심리에 적합한 의식향상훈련이나 자기표현훈련 같은 여성주의 상담을 개발해왔다(이시백 외, 2002). 그중 의식향상 집단은 자아의식과 자아 존중감의 증가, 전통적인 성역할과 남녀 차별주의 영향에 대한 인식, 여성과의 공동성에 대한 인식 증가, 여성과의 관계 및 연대감 증가, 여성의 경험과 여성에 대한 억압을 사회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의

개발, 대인관계 및 역할의 변화, 여성에게 가능한 기회와 선택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업이나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정소영, 2000). 의식향상 집단은 상담의 목적이 사회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식향상집단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평등성과 상담자의 감정이입이 요청된다. 또한 수정보다는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즉,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역할과 조건의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더 큰 사회 집단의 부분으로서 자신을 이해할 때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Kravets, 1980: 267-283).

따라서 여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생물학적이고 현상적인 남녀의 특성과 차이, 구체적인 성지식 뿐만 아니라 여성전체 삶의 맥락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 4) 이성관계 친밀감 증진 훈련

성이란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즉 인간의 성이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위치시켰을 때에만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인간관계훈련 특히 이성관계에서 적절하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차별적 교제 즉, 이성교제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이 교제를 통해 여러 가지 성관련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억압하는 방법보다는 이성과 평등한 관계를 맺고, 이성간에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흔히 사랑이라는 이유로 성적 관계를 요구하기 쉽고 성관계가 사랑의 표현 혹은 확인이라고 여기지만 연구에서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후 진정한 친밀감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Hatfield · Rapson, 1987: 259 - 278). 즉 성관계를 갖게 된 후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진전되리라는 논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열정적인 성욕망과는 구분되며 사랑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고 이해와 책임,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성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에게 사람의 마음은 나누되 성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랑을 검증 받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인식시켜야 하며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원숙한 사랑을 위한 친밀감개발 훈련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정과 사랑을 위해 성적 표현의 명확한 한계를 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윤명선, 1999).

이성관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이시백 외, 2002).

- 목표 : 1) 여러 유형의 이성관계를 이해한다.
- 2) 남녀간의 사랑각본을 이해한다.
- 3) 남자/여자의 심리에 대해 안다.

도입 1) 이성교제의 경험나누기

2) 건강한 이성교제

활동내용 : 이성교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한다.

- 1) 생애 주기별 이성관계 생각해보기
  - 자신의 경험(긍정적, 부정적)
  - 이성관계의 내용(감정, 성행동, 기간, 상대방)
- 2) 남녀간 사랑 각본 이해
  -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 사랑할 때 여자와 남자의 역할은?
- ‘사랑’의 역사 이해하기
- 3)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 알기
  - 남녀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 들추어내기
  - 남녀심리의 차이점과 공통점 알기
- 4) 이성관계와 성행동
  -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들은?
  - 내가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 VII. 결 론



## V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통해 십대 여학생의 성관련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성건강 및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십대 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십대 여학생들이 손잡기에서부터 키스까지의 친밀감표현 경험은 총점 0-20점 범위 중 평균 6.07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손잡기로 대상자의 57.47%가 응답하였고, 어깨동무 50.19%의 순이었다. 가슴 만지기의 경험에서부터 출산까지의 성교표현 경험은 총점 0-32점 범위중 0.38점으로 나타났고, 성교 2.30%, 임신 0.19%, 유산 0.19%로 경험하였으며 출산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성관련 경험의 총점은 평균 9.109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학교 계열별 성관련 경험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실업계 여학생이 인문계 여학생에 비해 친밀감표현 경험, 성교표현 경험, 전체 성관련 경험(가중치)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은 현재 이성교제를 하거나 과거에 경험이 있는 경우가 61.69%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성관련 경험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경험의 정도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의 성경험이 가장 많고, 과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의 순이었다.

넷째, 5개의 외생변수와 5개의 내생변수를 가지고 총 15개의 경로를 가진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를 검정한 결과 모형의 전반적인 지수를 나타내는 GFI(0.948), AGFI(0.918),

NFI(0.949), NNFI(0.952)가 모두 0.9이상으로 나타나고, RMR(0.050)도 .05이하로 나타나 경험적 자료가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5개의 경로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있어 수정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준 변수는 차별적 교제(0.834,  $t=14.898$ )와 자기효능감(-0.071,  $t=-1.972$ )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교제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관련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차별적 교제와 자기효능감이며, 이들 변수가 성관련 경험을 68.4%설명한다. 가설적 모형의 검정결과 차별적 교제와 자기효능감이 성관련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요인과 감각추구성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면에 있어서 차별적 교제, 감각추구성향, 가족요인, 자기효능감 등이 유의하였다. 즉, 이성교제나 성관련 경험이 있는 동료가 많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가족애착이 약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이 비교적 자료에 잘 부합되나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 경로의 고정과 추가과정을 거쳤다. 우선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간의 관계인 Gamma 행렬에서의  $t$ 값이 1.96보다 작아서 고정지수가 유의하지 않은 가족요인에서 성태도로 가는 경로( $\gamma_{11}$ )를 0으로 고정시켰다. 수정지수가 10이상인 되는 경로 중 이론적 설명이 부합되는 차별적 교제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beta_{42}$ )를 추가하였다. 수정모형의 부합도는 GFI(0.959), AGFI(0.923), RMR(0.047), NFI(0.953), NNFI(0.957)로 나타나 수정모형의 적합도나 간명도가 증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성 관련 경험은 직접적인 효과 측면에서 차별적 교제가 많을수록(0.851,  $t=14.681$ ), 자기통제를 잘 할수록(0.084,  $t=2.171$ ),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0.126,  $t=-3.127$ )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별적 교제로 나타났다. 자기통제

는 총 효과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효과측면에서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자기통제를 잘 할수록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구에 대한 재검토 및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이들 차별적 교제, 자기통제, 자기효능감에 의해 성관련 경험이 설명되는 정도는 68.2%로 나타났다.

여덟째, 수정모형에서 성관련 경험의 총 효과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은 차별적 교제로 직·간접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감각추구성향으로 간접적인 효과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효과만 나타났고,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가족요인은 간접적인 효과만을 나타내었다. 이들 변수가 성관련 경험을 설명하는 정도는 68.4%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과 성적 자율성증진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 기반 프로그램에서 성 교육전문가의 도입, 교육 내용과 방법 변화, 양질의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교육차원의 성교육과 지역사회내의 선도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교육 차원의 성교육은 학교 프로그램에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학생들과 근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차원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확산과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법과 연령별, 주제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건소에서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센터의 운영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산업체 및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선도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성교육자로 부모가 개입되지 않는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궁극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부모 및 가족 기반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동료 주도형 프로그램은 친구들간의 갈등을 또래를 개입하여 중재하도록 하는 방법, 또래끼리 공동의 과제를 성취해보게 하는 방법, 또래 중 전문가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또래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도와주려는 접근법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도는 전문가가 운영하지만, 동료 전문가를 개발시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환경의 조성면에서 대중매체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화와 심의 환경 조성해야 한다. 학교 주변의 만화방과 비디오방 노래방, 단란주점, 요정, 카페, 디스코텍 등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철저히 정비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 합동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유해 환경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위반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여학생들이 성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성적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자기주장 훈련을 통해 성접촉을 거절하는 기술 훈련,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의식향상 집단 훈련, 이성교제시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영실(2000). 청소년 재 임신 예방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태순(1993).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계수연·문인옥(1999).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 학회지, 제 16권 제 2호, pp. 137 - 155.
- 교육부(1999). 양성평등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든다. 학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교육부출판.
- 구병삼·이찬·신재철·김탁·송준·홍명호·박영주(1996). 10대 여성  
성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 학회지, 제 39권 제 6호,  
pp. 1007-1016.
- 구창모(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경이(1989).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실태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대 한국문화 연구원.
- 김기영·전명식(1996). SAS 인자 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김기환(1999).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 제8호,  
pp. 193-196.
- 김남성(1985). 인지적 행동수정. 서울 : 교학 과학사.
- 김상원·이양재·박순정·김수련·송은일(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  
실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 연구소. pp. 9 - 39.
- 김승복(1996).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청소년 성문제 대처 방안에 대한  
세마나 자료집. 성문화 연구소.
- 김영희(1986). 성역할 사회화에 관한 문헌적 탐색 : 가정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원우논총, 제 4권, pp. 179-207.

- 김영희(1988). 한국형 성역할 검사 개발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제 27집, pp. 179-182.
- 김영희(1994). 성역할 정체감과 학습된 무기력. 서울 : 정민사.
- 김영혜(2000). 한국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시청각프로그램이 성역할 정체감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 30권 제 6호, pp. 1556-1568.
- 김주연(1993).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준호 · 김은경(1995). 여자 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김준호 · 박정선(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진엽(1996). 고교생의 문제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경 · 최수정 · 김미영 · 양경미 · 임미림(1999). 성지식, 성태도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 내용 분석. 보건교육 건강증진 학회지, 제 16권 제 1호, pp. 167-185.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현숙(1999). 대학생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12권 제 2호, pp. 339-356.
- 김형모(1996). 청소년의 문제와 고민. 한국 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 심리학. 도서출판: 서원.
- 김태근(1997).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 동아일보 1998. 3.18일자 기사: 고교생 “성교육” 교과서 나왔다-서울시 교육청 배포.

- 문인옥(1997). 일부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학교보건  
교육학회지, 제 14권 제 2호, pp. 95-112.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
- 박성정(1996). 청소년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 박영주(1998). 한국 십대 여학생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 경험 실태.  
대한 간호학회지, 제 28권 제 3호, pp. 573-582.
- 박윤석(1999). 세기말 한국의 포르노 문화. 신동아 5월호. 동아일보사.
- 배미영(2000). 미혼모 발생요인 분석.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동규(1998). 올바른 성정보의 선택과 청소년 보호. 건전한 성문화  
정립방안 토론회자료집. 성문화 연구소.
- 성문화 연구소(1996). 청소년의 성교육-사회적인 면. 성교육 지침서 자료집.
- 성문화 연구소(1998). 건전한 성문화 정립방안 토론회 자료집.
- 신종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한양  
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정남(1999). 청소년 흡연행위 예측모형구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손정남(2000). 서울시내 여고생의 흡연행위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  
건강간호학회지, 제 6권 제 2호, pp. 316-329.
- 송인섭(1990).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안순덕(1985).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 6권. pp. 80.
- 엄명용(1998).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비행 예측요인의  
발굴. 학술진흥재단.
- 오복자(1994). 위암환자의 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에 대한 모형.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치선 외(2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 보호위원회.
- 윤가현(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윤명선(1999). 초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대 한국문화연구원(1989) 청소년 약물 오·남용실태와 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 이명하(1999). 약물남용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문(1995).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경(2000).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희 · 한성현 · 이명선 · 조희숙 · 채유미 · 유승현(2000). 미혼 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 관련 요인 분석. 보건교육 · 건강 증진 학회지, 제 17권 제 2호, pp. 1-14.
- 이성식(1995). 청소년비행론에 있어서 허위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 연구, 제6권 제4호, pp. 183 - 204.
- 이순묵(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시백 · 서정애 · 이제진 · 박인화(2002). 보호시설 청소년을 위한 성건강프로그램 개발. 한국 성문화 연구소.
- 이영숙(1995).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 이양미(2000).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 경험.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양재 · 김수련 · 송은임 · 서정애 · 오윤경(1998). 여고생의 성 경험 및 혼전 성관계 허용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 전국 실업계, 인문계 여성을 중심으로 -. 서울: 성문화 연구소.
- 이정은(1998). 자아상, 성태도, 충동성과 성행동의 관계: 서울 시내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원(1990). 모순적 사회화와 청소년 비행, 형사정책 연구, 통권 제 3, 4 합병호, pp. 103-125.
- 이태원(1992). 일탈행동이론의 통합모형구성을 위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찬 · 선우태원 · 구병삼(1999). 한국 청소년기 여성의 성경험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 42권 제 2호, pp. 307-320.
- 장순복 · 김소야자 · 한인영 · 박영주(2000). 10대 여성의 임신실태와 예방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장순복 · 김소야자 · 한인영 · 박영주 · 강현철 · 이선경(2001).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경험 관련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제31권 제5호, pp 921-931.
- 장휘숙(1999). 청년 심리학. 서울: 학지사. pp. 199-200.
- 전병재(1974). Self - 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 10권, pp. 109 - 129.
-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제 3권, pp. 132-160.
- 정소영(2000). 의식향상(CR)-여성상담의 집단적 접근.  
<http://ccas.pracenet.or.kr/theoh29htm>(검색일: 2001.10.11).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 청소년 개발원.
- 조영미(1999). 한국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분석.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pp. 11- 43.
- 차은석(1999).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12권 제2호, pp. 357-375.
- 청소년 지도 육성회(1988).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 고찰. 서울: 청소년 문제 연구소.
- 최선영(1993). 중등학교 교도교사들의 성교육 및 성상담 의식에 관한

- 연구. 서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최순남(199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연순, 장춘자, 조희술, 최양자. 장순복, 박영숙, 이남희, 조동숙, 이은희 (1999). 여성건강 간호학 I, II. 서울: 수문사.
- 최윤희(1993).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대 대학원 석사학원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93). 초중고 성교육 일기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89).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한성현 · 이명선 · 이선희(2000). 학생 및 비행청소년의 성 관심도와 문제 행동유형간의 관계. 보건교육 · 건강증진 학회지, 제 17권 제1호, pp. 19 - 39.
- 한인영(1998). 미혼모와 사회복지에 대한 통계. 부모-자녀 건강학회세미나.
- 한인영(2000). 10대의 성- 임신, 낙태의 현실과 대책. 대한가족보건 복지 협회 토론회 자료집.
- 함웅(1985). 성의식 구조 및 행동양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 홍경자(1996). 청소년 집단 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pp. 22-23.
- 홍선옥 · 표내숙(1994). 성역할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 지각에 관한 연구. 부산대 체육과학 연구소 논문집, 제 10호, pp. 223-236.
- 홍선옥 · 표내숙(1996).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특성 불안 간의 관계연구. 부산대 체육과학 연구소 논문집, 제 12호, pp. 217 - 226.

- Aas, H. Klepp, K. Laberg, J.C., and Aaro, L. E.(1995).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tion and self - efficacy. *Journal for the Study of Alcohol*, Vol. 56. No. 3. pp. 293- 299.
- Adler, F.(1975). *Sisters in crime: The rise of the new female criminal*. N.Y.: McGraw - Hill.
- Adler, F. and Towne, N.(1982). *Looking out, looking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Akers, R.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oston
- Alberti, R. E. and Emmons, M. N.(1978). *Your perfect right, a single to assertive behavior*(3rd ed). San Luis Obispo: Impact.
- Arnett, J.(1991).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 Reckless behavior among young adults aged 23-27.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2, pp. 1305 - 1313.
- Atwater, E.(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 Hall.
- Austin, R. L.(1977).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 a comment on conger. *Criminology*, Vol. 15, pp. 11-116.
- Bandura, A.(1977). Self -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Bardwick, J. and Douvan, E.(1972). Ambivalence: The socialization of women readings on the psychology of women. N.Y. : Harper & Row.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No. 42, pp. 155-162.
- Billy, J. · Landale, N. S. · Gradly, W. R. and Zimmerle, D. M.(1988). Effect of sexual activity on adolescent soci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Social Psychology, Vol. 51 No. 3, pp. 190-212.
- Block, J. 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 - 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Vol. 28, pp.135-144.
- Brindis, C. · Starbuck - Morales, S. · Wolfe, A. L. and McCarter, V.(1994).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ontraceptive use among adolescent females in school - based family planning program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26 No. 4, pp. 160 -164.
- Brook-Gunn, J. and Furstenberg, F. F.(1989). Adolescent sexu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No. 2, pp. 249 - 257.
- Cacioppo, J. T. · Petty, R. E. and Green, T. R. (1989).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From the tripartite to the homeostasis model of attitudes. In Pratkanis, A. R., Breckler, S, J, and Greenwald A. G.(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NJ: Hillsdale, pp.311-338.
- CDC(1998). Trends in sexual risk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United States, 1991-1997.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 47 No. 36, pp. 749-752.

- Chilman, C. S.(1980). Adolescent sexuality in a changing american society: Soci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 Chilman, C. S.(1983). Some psychological aspects of adolescent sexual and contraceptive behaviors in a changing american society. in Lancaster J. B. and Hamburg, B. A.(eds). School - age pregnancy and parenthood: Biosocial dimensions, N. Y.: Aldine DeFrulyter, pp. 191-217.
- Chilton, R. E. and Markle G. E.(1972). Family disruption, delinquent conduct and the effect of subclass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7, pp. 93 - 99.
- Chung, H. and Elias, M.(1996). Patterns of adolescent involvement in problem behaviors: relationship to self - 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life ev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 6, pp. 771-784.
- Dilorio, C. · Kelley, M., and Hockenberry E. M.(1999). Communication about sexual issues: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Vol. 24, No. 3, pp. 181 - 189.
- Donavan, J. E. · Jessor, R. and Costa, F. M.(1988). Syndrome of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3 No. 6, pp. 890-904.
- Dryfoos, J. G.(1990). Adolescent at risk. Oxford University Press.
- Family education network(1998). Top ten questions kids ask about sex. <http://family education. com>(검색일: 2001. 3. 5.)
- Felton, G. M. and Bartoces, M. (2002). Predictors of initiation of

- early sex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 females. Public Health Nursing, Vol. 19, No. 1, pp. 59 - 67.
- Ferguson, M. A. and Valenti, J. M.(1990). Risk - taking tendencies and radon messages: A field experiment testing an information process model for risk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Portland, OR.
- Ferguson, M. A. and Valenti, J. M.(1991). Communicating with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 - takers: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Health education Quarterly, Vol. 18, pp. 303 - 318.
- Forste, R, and Heaton, T. (1988). Initiation of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Vol. 19, pp. 250 - 268.
- Galassi, M. D., and Galassi, J. P.(1977). Assert yourself!: How to be your own person. N.Y. : Human Sciences Press.
- Garlick, R. · Ineichen, B. and Hudson, F. (1993). The UPA score and teenage pregnancy. Public Health, Vol. 107, pp. 135 - 139.
- Gillis, J. R., Meyer - Baulburg, H. F., and Exner, T. (1992). A comprehensive test of model predicting sexual risk behavi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DS, Vol. 8, pp 37 - 40.
- Gottfredson, M. and Hirschi, T.(1990). General theory to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 · Magder, L. and Aral, S.(1992). Age at first coitu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Vol. 19 No. 6, pp. 331- 334.
- Green, J., and Tones, K.(2000). Sex and the world. Sexual Health and Foundation for Practice. ed by Willson, H. and Mcandrew

- Bailliere Tindall, pp28 - 30.
- Guttmacher, S. · Weitzman, B. C. · Kapadia, F. · Weinberg, S.(2002).  
Classroom-based surveys of adolescent risk - taking behaviors:  
reducing the bias of absenteeis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2 No. 2, pp.235-237.
- Hatfield, E. · Rapson, R. L.(1987). Passionate love/sexual desire: Can  
the same paradigm explain bo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16 No. 3, pp. 259 - 278.
- Hayes, C. D.(1987). Risking the future: Adolescent sexuality,  
pregnancy, and childbearing. National Academy Press.
- Henshaw, S. K.(1997). Teenage abortion and pregnancy statistics by  
state.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29 No.3, pp. 115-122.
- Hetherington, M.(1972). Effects of father - absence on personatity  
in adolescent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7. pp.  
313-326.
- Hindelang M. J.(1973) Cause of Delinquency :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 Vol. 20.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1977),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Inquiry, Vol. 47 No. 3-4, pp. 322-341.
- Hirschi, T. and Gottfredson, M.(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 47 - 54.
- Hornick, J. P.(1978).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 Sociological Quarterly, Vol. 19, pp. 534-544.
- Hudson, W. W.(1992).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empe, AZ: WALMYR Publishing Co.
- Hudson, W. W, · Murphy, G. J., and Nurius, P. A.(1990). A short form scale to measure liberal vs sexual expressio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 19, pp. 258 - 272.
- Humphrey, L. I.(1982). Children self - control in relation to perceived social environment: A naturalistic investig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 42 No. 5-b, pp. 2060.
- Hurlock, E. B.(1983). Child development. McGraw- Hill.
- Huizinga, D. · Loeber, R., and Thornberry, T. P.(1993). Longitudinal study of delinquency, drug use, sexual activity and pregnancy among children and youth in three cities. Public Health Reports, Vol. 108 No. 1, pp. 90 - 96.
- Johnson R.E.(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 An Integrated Theoretical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Jordan, T. R. · Price, J. H. · Telljohann, S. K. and Chesney, B. K. (1998).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regarding nonconsensual sexual behavior.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8 No. 7, pp. 289-296.
- Kaplan, H.B. · Martin, S.S., and Johnson, R. J.(1986). Self- rejection and the explanation of deviance : Specification of the structure among latent constru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2, pp. 384-411.

- Kendall, P.C. and Wilcox, I. E.(1979). Self - 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7 No. 6, pp. 1020 - 1029.
- Kim, J.(1995).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the Korean male university students. The John Hopki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 Kinsman, S. B.(1998). Early sexual initiation the role of peer norms. *Pediatrics*, Vol. 102 No. 5, pp. 1185 - 1192.
- Kraft, P and Rise J.(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Norwegian adolescents. *Health Educatio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Vol. 9 No. 2, pp. 193-200.
- Kravetz, D. (1980). Consciousness-raising and self - help. *Women & psychotherapy*, Brodsky, A. · Hare-Mustin, R.(eds). N.Y.: Guilford press. pp. 267-283.
- Krohn, M. D. and Massy, J.L.(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Vol. 21, pp. 529 - 543.
- Krohn, M. D. · Skinne, W. F. · Massey, J. L., and Akers, R. L.(1983). Social bonding theory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4 pp. 337 - 349.
- Lasley J. R.(1988). Toward a control theory of white - collar offend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4, pp. 347 - 359.
- Lasorsa, D. L, and Shoemaker, P, J.(1988). Gambling with your

- health : Predictors or risk for AIDS.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Portland, OR.
- Loy, P and Norland, S.(1981). Gender convergence and delinquency.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22, pp. 275.
- Ludwig, K. B. and Pittman, J.(1999). Adolescent prosocial values and self - efficacy in relation to delinquency, risky sexual behavior, and drug use. Youth & Society, Vol. 30 No. 4, pp. 461-482.
- Markey, J.(2000). The Penguin Atlas of Human Sexual intimacy in dating relationships. Penguin Reference, pp. 93 - 103.
- Massy J. L. and Krohn M. D.(198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n integrated social process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Forces, 65, 106- 134.
- Mckelvey, R. S. · Webb, J. A. · Baldassar, L. V. · Robinson, S. M., and Riley, G.(1999). Sex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among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y, Vol. 33 No. 2, pp. 260 - 266.
- McWhiter, J. J.(1988). At risk youth, Brooks: Cole Pub. pp. 140 - 142.
- Meilman, P.(1993). Alcohol-induced sexual behavior on campus. College Health, Vol. 42, pp. 27 - 31.
- Miham, S. · Davis, R. L. and Tollestrup, K.(1990). Trends in teenage smoking during pregnancy., Washington state : 1984 through 1988. American Journal of Disease Child, Vol. 144, pp. 1297 - 1301.
- Miller, B. C. · Card, J. J. · Paikoff, R. L., and Peterson, L. L.(1992).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Miller, B. C. and Norton, M. C, (1998). Pubertal development, parental communication and sexual values in relation to adolescent sexual behavior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8, No. 1, pp. 27-52.
- Nathan, P. E.(1988). The addictive personality is the behavior of the add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6, pp. 183- 188.
- Nord, W. R.(1969). Social exchange theory: An integrative approach to social conformity, *Psychological Bulletin*, Vol. 71, pp. 174 - 208.
- Orr, D. P. · Silbrant, M. L. · Black, D. J. · Rauch, S. P. and Ingersoll, G, M.(1989). Reported sexual behaviors and self - esteem among you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Dis Child*, Vol. 143 No. 1, pp. 86-90.
- Polk K .D. and Halferty D. S.(1966) Social Class, School Experien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No. 12, 84-9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 image: conceiving the self*. N. Y.: Basic Book, Inc.
- Rossi, A. S.(1997).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social change on adolescent sexual behavio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9 No. 5/6, pp. 369 - 400.
- Shafer, M. A.(1988). High risk behavior during adolescence. in Schinazi, R. F. and Nahmias, A. J.(eds). *AIDS in children, adolescents and heterosexual adul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Prevention*.

- N. Y.: Elsevier, pp. 329 - 334.
- Sheer, V. C. and Cline, R. J.(199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odel explaining sexual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1 No. 2, pp. 280-304.
- Sheer, V. C. and Cline, R. J.(in press). Individual difference in sensation seeking and sexual behavior: Implication for communication intervention for AIDS among college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 Sherer, M. and Maddux, J. E.(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193-202.
- Singh, S. · Darroch, J. E. and Frost, J. J.(2001).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adolescent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 the case of five developed countri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33 No. 6, pp. 251-258.
- Sionean, C. · Diclemente, R. J. · Wingood, G. M. · Crosby, R. · Cobb, B. K. · Harrington, K. · Davies, S. L. · Hook, E. W., and Oh, M. K.(2002).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refusing unwanted sex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0 No. 1, pp. 55-63.
- Small, S. A. and Luster, T.(1994).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 ecological, risk - 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Small, S. A. and Bogenschenider, K.(1994). Youth at risk for early sexual activity and teenage parenthood. *Wisconsin Youth Futures Technical report*. No. 1.
- Smith, E. A. and Udry, J. R.(1985). Coital and non-coital sexual

- behaviors of white and black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Public Health*, Vol. 75, pp. 1200 - 1203.
-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al Control.(1997). Adolescent risk behaviors: South Carolina Kids count project. Columbia, SC.
- Spitz, A. M. · Ventura S. J. · Koonin, L. M. · Strauss, L. T. · Frye, A. · Heuser, R. I. · Smith J. C. · Morris, L. · Smith, S. · Wingo, P., and Marks, J. S.(1993). Surveillance for pregnancy and birth rates, among teenager, by State United, 1980 - 1990, *MMWR*, Vol. 42 No. 556,pp. 1-27.
- Strecher, V. J. · Edcellis, B. M. · Becker, M. H. and Rosenstock, I. M.(1986). The role self efficacy in achieving health behavior change. *Health Education Quarterly*, Vol. 13 No. 1, pp. 73-91.
- Surbey, M. K.(1990). Family composition, stress, and the timing of human menarche. In Zeiger, T. E. and Bercovitch, F. B.(Eds). *Socioendocrinology of primate reproduction*. N. Y. : Wiley. pp. 11-32.
- Sutherland, H. and Cressey, D. R.(1978). *Criminology*. Philadelphia : J.B. Lippincott.
- Todler, N. L. and Marcia J. E.(1973). Ego identity status and response to conformity pressur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o. 26, pp. 287 - 294.
- Thompson W. E. , Mitchell and dodder R.A.(1984) An empirical test of Hirschi's control theory of delinquency, *Deviant Behavior*, Vol. 5 No.(1- 4), pp. 11-22.
- Urdu, J. Campbell, B. C.(1994). Getting started on sexual behavior.

- In Rossi, A. S.(Eds). Sexuality across the life cours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87 - 207.
- Wagner, C. A.(1980). Adolescent sexuality. In Adams F.(eds). Understanding adolescence: Current development in adolescent psychology. pp. 277.
- Weinstein, N. D.(1989). Perceptions of personal susceptibility to harm. In Mays, V.M., Albee, G. W. and Schneider S. F.(Eds). Primary prevention behavior, N. Y. : Plenum, pp. 23 - 39.
- Wiatrowski, M .D. · Griswold, D. B. and Robert M.K.(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 525 - 541.
- Widom, C. S.(1979). Female offenders: Three assumptions about self - esteem, Sex role identity and Femin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6 No. 5, pp. 365.
- Wilkinson, K, R.(1978). Juvenile delinquency and femininity, Univ. of Arisona, Ph. D. Theses.
-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1998). Workshop on adolescent Health.
- Yamaguchi, K · Kandell, D. (1987). drug use and other determinant of premarital and its outcome: Dynamic analysis of competing life ev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9, pp. 257 - 270.
- Yancey, A. · Siegel, J. McDaniel, K.(2002). Role models, ethnic identity, and health - risk behaviors in urban adolescents, Vol. 156, No. 1, pp. 55-61.
- Zucherman, M. and Bone, R. N.(1972). What is the sensation seeker?

Personality trait and experience correlates of the sensation - seeking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39. pp. 308 - 321.

Zucherman, M.(1986). Sensation seeking and the endogenous deficit theory of drug abuse. In Szara, S. I.(eds). *Neurobiology of behavioral control in drug abuse*. NIDA Research Monograph 74.

Zimmerman, R. S. · Sprecher, S. · Langer, L. M, and Holoway, C. D.(1995). Adolescents' perceivedability to say "no" to unwanted sex.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0 No. 3. pp. 383- 399.